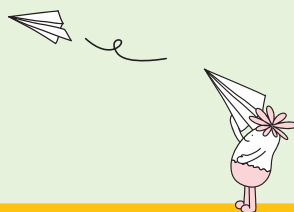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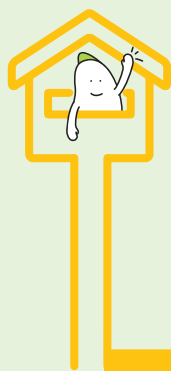


완벽한 자율학습서

완자

자습서 정답친해

중등국어 2-1



갈래 펼치기



시

● 본문 006쪽

1 (1) × (2) × (3) ○ 2 (1) 운율 (2) 반복 3 ②

- 1 (1)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으로, 시의 음악적 요소에 해당한다. 의미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주제이다.
(2) 시인이 시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은 주제이다.
(3) 비유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인 원관념을 그와 유사한 다른 대상인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비유에는 직유, 은유, 의인, 대유, 풍유 등과 같은 방법이 있다.

- 2 (1)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뜻하며, 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2) 시에서 운율은 주로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음절 수와 음보의 반복으로도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

- 3 역설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진술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이다.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은 반어이다.



소설

● 본문 007쪽

1 (1) × (2) × (3) ○ 2 ① 3 직접 제시, 간접 제시

- 1 (1)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이다. 인물은 소설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소설을 구성하는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2) 인물의 성격은 작품에서 인물 간의 대화로도 드러나지만 인물에 대한 묘사로도 드러난다. 또한,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을 알려 주기도 한다.
(3) 배경은 인물이 행동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시대적·사회적 환경이나 장소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배경의 기능

작품의 사실성 부여	구체적인 지명이나 실제 사건 등을 언급할 경우 사실성을 부여할 수 있음.
작품의 분위기 형성	배경은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함.
작품의 주제 부각	배경은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함.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전개 암시	배경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방향을 암시하기도 함.

- 2 제시된 부분은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대석 언니'는 천하의 말썽꾼이긴 하지만, 톡톡하고 기운 세고 싸움도 잘한다고 하였다.

○ 단답인 이유 ②, ③ '교활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꾀가 많다는 의미이고, '냉정하다'는 것은 차갑거나 침착하다는 의미이다. '대석 언니'의 모습에서 교활하거나 냉정한 성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⑤ '대석 언니'는 '천하 말썽꾼'이라고 하였으므로, 제시된 모습에서 순박하거나 성실한 성격은 나타나지 않는다.

- 3 인물의 성격을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는 직접 제시는 독자가 인물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인물의 외양 묘사나 대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간접 제시는, 독자가 좀 더 능동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수필

● 본문 008쪽

1 ⑤ 2 (1) 경수필 (2) 칼럼 (3) 줄글 3 나

- 1 수필은 전문적인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 수필뿐 아니라 어떤 글쓰기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 2 (1) 수필은 편지, 기행문, 일기 등의 경수필과, 칼럼, 평론 등의 중수필로 나뉜다.
(2) 중수필은 사회적인 문제나 공적인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한 글로, 이중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되는 짧은 글을 칼럼이라고 한다.
(3) 시는 운율이 있는 말로 압축하여 표현하다 보니 연과 행의 구분이 있는데, 수필이나 소설은 이러한 율격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문장으로 쓴다.

- 3 수필은 글쓴이가 직접 겪은 체험을 사실적으로 쓰는 글인 반면에, 소설은 작가가 허구적인 내용을 꾸며 쓰는 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수필 속의 '나'는 글쓴이 본인이지만, 소설 속의 '나'는 그 작품 속 등장인물이 된다.

참고 자료

소설의 특성

허구성	사실 그대로가 아닌,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낸 이야기임.
서사성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있으며,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됨.
진실성	꾸며 낸 이야기이지만, 인생의 진실을 추구함.
예술성	문학 작품으로서 언어를 통해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감동을 전함.
모방성	허구의 문학이지만, 현실 세계의 모습을 본뜨거나 반영함.



설명하는 글

● 본문 009쪽

- 1 (1) 정보 전달 (2) 처음 2 (1) 예시 (2) 대조 (3) 분류
3 ③

1 (1) 설명하는 글은 독자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주장하는 글이다.
(2) 설명하는 글에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글을 쓴 동기 및 목적을 제시하며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는 부분은 ‘처음’이다.

2 (1) 설명 대상의 개념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독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예시이다.

(2)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고,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비교와 대조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필요로 한다.

(3) 분류는 어떤 기준에 따라 무리를 짓는 것이므로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묶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3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읽는 것은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이다.



발표

● 본문 010쪽

- 1 (1) ○ (2) ○ 2 (1) 가운데 (2) 끝 (3) 처음 3 ⑤

1 (1) 발표할 때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발표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청중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발표는 발표자와 청중 사이의 상호 작용이므로 발표자가 어떤 태도로 발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청중 역시 발표에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 한다.

2 (1) 발표를 할 때에는 ‘가운데’ 부분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 수 있으며, 이때 시청각 자료 등의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 및 강조하고, 당부의 말이나 덧붙이는 말을 언급하는 것은 ‘끝’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3) 발표 주제, 목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발표 참여자 및 역할 분담을 소개하는 것은 ‘처음’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3 청중은 발표를 들을 때 발표 내용의 핵심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들어야 한다. 발표 중간에 의문 나는 점에 대해 바로 질문하면 발표의 흐름이 끊기므로 적절하지 않다. 의문 나는 점은 발표가 끝나고 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화

● 본문 011쪽

- 1 (1) ○ (2) × (3) × 2 공손성 3 ③

1 (1) 대화를 하면 대화 상대와 생각을 주고받으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친교 중심의 대화는 정보 소통을 위한 말하기가 아니라 관계 발전을 위한 말하기에 속한다.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친교 중심적 말하기, 공감적 말하기, 우회적 말하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대화의 원리 중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예절 바르게 말해야 한다는 것은 ‘공손성의 원리’이다.

참고 자료

대화 상황에 따른 말하기 방식

친교의 대화	→	비유적인 표현 사용하기, 돌려 말하기, 진심을 다해 말하기
정보를 전달하는 대화	→	객관적인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하기
친밀한 사람과의 대화	→	개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화제로 삼고 이미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은 생략하여 말하기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의 대화	→	상대의 주변 상황이나 공통의 관심사 등을 화제로 삼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하기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상대와의 대화	→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배경지식이 부족한 사람과의 대화	→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쉬운 용어 사용하기

2 대화할 때 대화의 원리를 지키며 말하고 듣는다면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대화의 원리에는 공손성의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 협력의 원리가 있다.

3 대화 참여자 중 듣는 이는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며, 말하는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적절하게 호응하면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상대방 말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며 듣는 것은 원만한 대화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나를 키우는 읽기

(1)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확인 문제

● 019~021쪽

019쪽 1 ③ 2 ⑤ 3 ④
021쪽 4 ④ 5 만병통치약 6 ②

1 글쓴이는 다양한 예를 들어 우리가 왜 책을 읽는지 설명함으로써 독자가 자신의 읽기 경험을 떠올려 볼 수 있게 유도하고 있을 뿐,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글 전체를 놓고 볼 때 글쓴이의 책 읽기에 대한 권유가 드러나 있기는 하나 이 글은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조선 후기의 인물인 '이덕무'를 예로 들어 독자가 책 읽기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②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이 반말로 친근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④ "또 어떤 까닭이 있을까?", "어때, 놀랍지 않아?"와 같이 글쓴이는 독자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함으로써 독자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⑤ '처음 ①' 부분에서 책 읽기와 관련한 경험을 떠올려 보게 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2 글쓴이는 처음 부분에서 우리가 책을 읽는 다양한 목적을 나열하고 있다. 책을 읽는 까닭에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글쓴이가 제시한 이유는 지식을 얻거나 올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책을 읽는 모습 자체를 자랑하는 것은 글쓴이가 제시한 책 읽기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3 글쓴이는 서자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벼슬을 할 수 없었던 '이덕무'가 많이 답답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이덕무'가 책과 그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벗들에게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이덕무'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책 읽기에 몰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이덕무'는 책을 읽으면 감기가 낫다고 했고, 글쓴이 역시 글을 읽으면 몸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책을 읽는다고 하여 체질 자체가 바뀌어 아프지 않게 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5 **서술형** 글쓴이는 글을 읽는 것을 '만병통치약'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읽기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만병통치약'은 '1. 온갖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약이나 처방. 2. 여러 가지 경우에 두루 효력을 나타내는 어떤 대책을 비유적으

로 이르는 말.'로, 글을 읽는 것이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6 이 글의 글쓴이는 '가운데 ⑦'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좋아하는 책을 한두 권 정해 두고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외로울 때 조금씩 읽어 보라고 권유하고 있다(ㄱ). 그리고 재미있는 책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걱정이나 근심을 잊을 수도 있으며, 마음이 평온해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ㄷ).

오답인 이유 나. '끝 ②'에서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할 때일수록 책 읽기에 더없이 좋을 때이기 때문에 독서삼매에 빠져야 한다고 하였다.

ㄷ. 글쓴이는 '가운데 ⑦'에서 좋아하는 책을 한두 권 정해 놓고 읽어 볼 것을 권유하고 있을 뿐, 다양한 책을 읽는 것과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의 가치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소단원 평가



01 ③ 02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03 ④ 04 ② 05 ④ 06 ② 07 만병통
치약 08 ② 09 ③ 10 ④ 11 ②
12 ③ 13 ⑤ 14 ③ 15 ③

01 (마)에서 '이덕무'는 서자라는 신분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벼슬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덕무'가 벼슬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책을 읽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책을 읽는 다양한 목적을 열거하고 있다.

② 서자였던 '이덕무'가 벼슬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조선 시대에는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나, 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행위는 지식을 쌓거나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이덕무'는 서자여서 벼슬을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양반은 양반이니가 아무 일이나 할 수도 없었다.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덕무'의 슬프고 답답한 마음을 다스리게 해 준 것이 바로 책 읽기라고 할 수 있다.

02 **서술형** '나'는 영화를 보면서 '블랙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그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어 보려고 하였다. 따라서 '나'는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읽으려 한 것이다.

03 (다)를 통해 '이덕무'는 배가 고프거나 추울 때, 근심과 번뇌가 있거나 아플 때에도 책을 읽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책을 언제나 가까이하면서 자주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4 ‘간서치’는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으로, ‘이덕무’가 배고프고 춥고, 근심과 걱정이 쌓일 때조차도 책 읽기에 열중했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다.

05 글쓴이는 언제나 책을 가까이하고 책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이덕무’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독자가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볼 수 있다.

06 (마)에서 글쓴이는 책을 읽으면 지혜로워지고 지식을 쌓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쌓은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뽐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07  <보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상처 난 가슴을 달래 주는 책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책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은 ‘만병통치약’이다.

08 글쓴이는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할 때야말로 책 읽기에 더없이 좋을 때라고 하면서, 독자에게 책 읽기를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오직 책 읽기에만 몰두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독서삼매(讀書三昧)’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주경야독(晝耕夜讀):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글을 읽는다는 뜻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끈기있게 공부함을 이르는 말.
③ 형설지공(螢雪之功): 반딧불·눈과 함께 하는 노력이라는 뜻으로, 고생을 하면서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자세를 이르는 말.
④ 등화가친(燈火可親): 등불을 가까이할 만하다는 뜻으로, 서늘한 가을밤에 등불을 가까이하여 글 읽기에 졸음을 이르는 말.
⑤ 독서망양(讀書亡羊): 글을 읽는 데 정신이 팔려서 먹이고 있던 양을 잃었다는 뜻으로, 하는 일에는 뜻이 없고 다른 생각만 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말.

09 (다)는 ‘이덕무’의 말을 인용하여 책 읽기의 유익함을 설명하는 한편, ‘이덕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책을 가까이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책을 읽는 다양한 방법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열거법이 사용된 것은 책 읽기의 목적을 나열한 (가)에서이다.

10 (가)에서는 책을 읽는 다양한 목적을 나열하고 있다. 글쓴이는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등의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논문 또한 글쓴이가 읽자고 하는 책의 종류로 보기도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책을 읽는 것 자체의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을 위해 책을 읽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기분 전환을 위해 책을 읽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혹은 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1 (마)에서 글쓴이는 책을 읽으면 지혜로워지고, 지식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고픔이나 추위도 잊을 수 있고, 걱정이거나 근심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 읽기의 가치를 ‘만병통치약’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책을 읽는 것이 여가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는 것은 맞지만, 글쓴이가 책 읽기를 ‘만병통치약’에 빗댄 이유로 제시한 내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12 이 글의 글쓴이는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의 자세에 대해 다짐하고 있다. 독자가 이 글을 보면서 글쓴이의 깨달음에 공감하여 자신의 삶의 자세를 성찰해볼 수 있지만, 글쓴이가 직접적으로 독자들을 설득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② 글쓴이는 ‘시로미’, ‘싸리나무’, ‘고사리’ 등의 식물을 예로 들어,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들도 저마다 존재 가치가 있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④, ⑤ 자신이 남대문 야시장에 갔던 경험, 시로미를 발견했던 경험을 실마리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13 글쓴이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도 저마다 제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깨달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우리가 눈여겨 보지 않던 존재들도 모두 소중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보다 못한 존재들을 통해 위로받겠다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14 이 글의 글쓴이는 무기력한 기분이 들 때마다 물고기처럼 파닥파닥 살아 숨 쉬는 사람들이 넘쳐 나는 ‘남대문 야시장’에 간다고 말하고 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나오면 한여름에 시원한 음료를 들이킨 기분을 느낀다고 말한 것에서 ㉠은 글쓴이에게 삶의 활력이 넘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15 ㉠, ㉡, ㉢, ㉣는 글쓴이가 저마다의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들’이나, ㉤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핵심 정보를 담은 발표

소단원 평가

054~055쪽

- 01** ④ **02** (한 달에 만 원 정도) 기부하기,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주변에 알리기, 기아 관련 정책이나 소식에 관심 기울이기
03 ⑤ **04** ① **05** 시간의 순서나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조직한다. **06** ⑤ **07** ④ **08** ③
09 ⑤

01 이 발표문은 (가)에서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다음, (나)에서 기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기아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문제와 해결 방법에 따라 내용을 구성한 것이다.

참고 자료

내용 조직 방법

대상을 소개할 때	대상의 구조나 쓰임, 외형 등에 따라 내용을 구성함.
사건이나 현상을 소개할 때	시간의 순서나 공간의 이동, 사건의 원인과 결과, 문제와 해결 방법에 따라 내용을 구성함.
조사 결과나 실험의 과정을 보고할 때	단계나 절차에 따라 내용을 구성함.

02 **서술형** 이 발표자는 (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아 기부하거나,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주변에 알리고 기아 관련 정책이나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기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한 달에 만 원 정도 기부하기'를 바르게 찾아 썼다.	☐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주변에 알리기'를 바르게 찾아 썼다.	☐
'기아 관련 정책이나 소식에 관심 기울이기'를 바르게 찾아 썼다.	☐

03 ㉠은 구호 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기부 활동을 소개한 영상이다. 발표자는 이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듣는 이가 참여할 수 있는 구호 단체의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듣는 이가 기아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을 뿐, 기아 문제가 발생한 다양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04 많은 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를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너무 많은 자료는 오히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05 **서술형** 어떤 장소를 여행한 소감을 발표할 때에는, 자신이 이동한 경로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면서 그때그때 느낀 감정을 진솔하게 말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평가 기준	확인 ☒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06 이 모둠은 '환경부가 고른 우수 환경 도서'라는 점, 글쓴이가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읽을 책을 선정하였다.

07 발표를 할 때에는 핵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꼭 필요

한 핵심 정보를 전달해야 듣는 이가 발표 내용에 집중할 수 있다.

08 책을 읽고 발표를 한다고 해서 발표 주제에 대한 청중의 생각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발표 주제에 대한 여러 사람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09 이 발표의 주제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수진'이 전기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려 주자고 한 것은 주제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완자쌤의 풀이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하기 위해서는, 발표의 목적과 주제를 분명히 정한 다음,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발표할 내용을 마련해야 해. 이렇게 마련한 내용은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하지. 또한 내용을 조직할 때에는 제시하려는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통일성을 갖추고 있어야 해. 아무리 좋은 자료더라도 발표 주제와 관련이 없다면, 듣는 이가 발표를 집중해서 듣기 어려울 수도 있고, 발표자가 말하려는 바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야.

대단원 평가



064-069쪽

01 ②	02 ④	03 책벌레, 간서치	04 ④
05 ④	06 ⑤	07 ③	08 ③
09 ⑤			
10 시로미	11 ①	12 ②	13 ①
14 ②			
15 ③	16 ①	17 가운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제시	18 ⑤
19 ②			
20 ②	21 ③	22 ⑤	

01 이 글은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던 '이덕무'의 삶과, 책에 대한 그의 말을 살펴봄으로써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02 글쓴이는 '이덕무'의 사례를 들어,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 때 책을 읽으면 마음도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보기>의 학생에게 ④와 같이 조언해 줄 수 있다.

03 **서술형** (다)에서 글쓴이는 추우나 더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책에서 손을 놓지 않았던 '이덕무'를 '책벌레'라고 표현하고 있다. (마)에서 글쓴이는 이처럼 책 읽기에만 몰두

하는 ‘이덕무’는 실제로 ‘간서치’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다.

04 ‘이덕무’는 서자라는 이유로 벼슬을 할 수도 없었고, 너무나 가난하여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양반이라는 이유로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었기에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을 준 것이 책과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벗들이었다. 그렇기에 ‘이덕무’는 책 읽기에 더욱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05 (라)에서 글쓴이는 독자에게 ‘이덕무’가 기침을 할 때 소리를 내서 글을 읽다 보면 몸속에 기운이 잘 흐르게 되어 기침이 멎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였다. 이는 독자에게 책 읽기를 권유한 것일 뿐이지 책을 읽는 방법을 소개한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이덕무’는 슬픈 마음을 위로하며 책을 읽으면, 절망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덕무’에게 책 읽기는 마음을 평온하게 해 주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글쓴이는 좋아하는 책을 한두 권쯤 정해 놓고,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외로울 때 읽어 보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③ (다)에서 글쓴이는 책을 읽으면 몸속 어딘가에 저장 혹은 기억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떠오르며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하고, 삶을 잘 살아가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책을 읽으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책을 읽기에 더없이 좋은 때일수록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독자에게 책 읽기를 생활화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06 (가)에서 ‘이덕무’는 지극히 슬프더라도 슬픈 마음을 위로하며 조용히 책을 읽는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면 절망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07 이 글의 글쓴이는 책을 읽으면 온갖 걱정 근심을 잊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책을 읽을수록 생각이 많아지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진다는 것은, 이 글에서 말하는 책 읽기의 가치와 거리가 멀다.

오답인 이유 ①, ④ 글쓴이는 아주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책을 한두 권 정해 놓고, 아주 많이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외로울 때 읽어 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②, ⑤ 글쓴이는 책을 읽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걱정이나 근심도 잊고 책에 푹 빠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책을 읽으면 글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며 지혜로워지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하였다.

08 이 글의 갈래는 수필이다. 수필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을 표현하는 문학 갈래이다.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설명하는 글이다.

참고 자료

수필의 특징

- 자유로운 형식: 정해진 형식이 없고 구성이나 표현에 제약이 없어 자유롭게 씀.
- 제재의 다양성: 생활 속에서 글쓴이가 체험하거나 생각한 모든 것이 제재가 됨.
- 자기 고백적: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함.
- 개성적: 글쓴이 자신의 관심사나 가치관, 문제 등이 강하게 나타남.
- 비전문적: 전문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음.
- 사색적: 사물이나 인생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생각과 깨달음이 드러남.

09 이 글은 자연물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요즘 세태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 <보기>도 마찬가지로 동해 바다를 보면서 동해 바다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하며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을 뿐, 요즘 세태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10 **서술형** ㉠은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불모지에 제일 먼저 들어와 지반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무들이 살아갈 운택한 토양을 만들어 냄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쑥, 억새, 고사리와 같은 식물이다. ‘시로미’는 콩알보다 작은 열매를 맺는 나무이지만, 그 작은 열매 안에 물기를 한가득 담아내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므로 ㉠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1 (라)에서 글쓴이는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낼 때 자기 자신과 세상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들이 보기에는 못생겨서 쓸모가 없어 보이는 나무들이 결국에 산에 살아남아 묵묵히 산을 지킨다는 뜻을 담고 있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다.

오답인 이유 ② 사물이나 현상의 일부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③ 아무리 좋은 사람이나 물건이라도 부족한 부분은 있기 마련이라는 의미이다.

④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뽐내 쓰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기초가 튼튼하면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 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완자쌤의 풀이

이 글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도, 제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존재들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 ‘개척 식물’도 이러한 존재인 거지. 따라서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스스로 묵묵히 일하며 제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대상을 찾아보면 될 거야.

12 '보릿고개'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굶주림을 겪었던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당시에 굶주림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당시의 식량 상황과 관련된 통계 자료 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보리와 쌀을 비교한 사진은 '보릿고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이 발표자는 독서 모둠 활동 때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점을 청중과 함께 살펴보고 발표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읽은 책을 직접 보여 주거나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듣는 이의 주의를 끄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그래프'를 제시하여 지수의 변화 양상을 보여 주면, 청중이 한눈에 식품 에너지 공급량 증가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④ '사막화 현상'이 일어난 지역의 사진을 보여 주면, '사막화 현상'이라는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⑤ (마)에서 발표자는 영상을 보여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어지는 내용을 고려할 때, 영상이 구호 단체의 기부 활동과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구호 활동이 담긴 영상을 제시하면, 듣는 이가 참여 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3 ㉠은 이 발표를 진행한 모둠에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읽고 깨달은 점을 밝힌 것으로, 이 발표의 주제를 결정하게 된 계기에 해당한다. (가)에서 이 책을 독서 모둠 활동 때 읽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그 책을 읽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다.

14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있다. 그러나 그 책이 모둠 구성원의 독서 수준에 맞지 않거나 모둠 구성원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책일 수도 있다.

15 '독서 카드'는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정보 및 자신의 감상과 깨달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책을 읽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쓸 필요는 없다.

16 플라스틱 제조 공정을 자세히 소개하는 영상은 발표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플라스틱의 주성분을 알려 주거나, 플라스틱이 잘 썩지 않는 이유 등을 제시하여 플라스틱이 왜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17 **서술형** 개요를 보면, 가운데 부분에서 플라스틱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는 지구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을 덜 쓰고 재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가운데 부분의 '해결 방안'을 다루는 곳에 들어갈 내용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운데' 부분임을 정확하게 썼다.	☐
해결 방안을 다루고 있는 단계임을 찾아 썼다.	☐

18 발표문은 발표를 하기 전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지,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발표문을 작성할 때에도 실제 발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발표할 때 어떤 동작을 할지까지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 발표를 연습할 때에는 발표를 듣는 사람들의 지식수준, 나이,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발표를 듣는 사람들 간의 관계는 발표 내용이나 발표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점검할 필요는 없다.

20 (다)~(마)의 발표자는 책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여러 사람과 함께 사회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다. 이처럼 책을 읽음으로써 다양한 문제에 대해 더욱 깊게 생각해 보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는 있지만, 책을 읽는다고 하여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글쓰이는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다)~(마)의 발표자는 책을 읽으면서 기아 문제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④ (다)~(마)의 발표자는 책을 읽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 것이다.

⑤ (다)~(마)의 발표자는 책을 읽고 깨달은 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발표를 하고 있다.

21 권위 있는 사람이나 특정 분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전하려는 내용에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또한 기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발표자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정 스님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22 '학교 급식실의 실태 보고 및 개선 방안'이라는 발표 주제는 학교 급식실의 실태를 점검한 후 그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와 해결 방법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험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구성은 구체적인 실험 과정이 드러나는 발표 주제에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우리 마을 축제 안내'라는 발표 주제는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② '우포 늪을 여행한 소감'이라는 발표 주제는 여행의 경로나, 시간의 순서대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환경 오염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이라는 발표 주제는 문제가 벌어지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순서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④ '우리 학교 도서관 이용 실태 보고'라는 발표 주제는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므로, '조사 동기, 조사 방법, 조사 결과'와 같이 조사 단계나 절차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 담화의 개념과 특징

소단원 평가

092-093쪽

01 ① 02 ③ 03 ③ 04 ④ 05 ④
 06 ② 07 ② 08 ⑤ 09 ③

01 (가)~(다)의 “어떻게 왔어?”라는 말은 (가)에서는 “무엇을 타고 왔니?”, (나)에서는 “어디가 아프니?”, (다)에서는 “어떻게 알고 왔니?”라는 뜻으로 쓰였다. 이로 보아 같은 말이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그 뜻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이야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있어야 하며, 이 둘은 꼭 필요한 요소이다.

③, ④ 담화는 담화 참여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맥락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뜻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⑤ 말이나 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가)~(다)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완자쌤의 풀이

(가)~(다)의 발화에서 동일한 발화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에 주목하면 말이나 글의 뜻이 말하는 이, 듣는 이, 시간과 공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02 (가)~(다)의 “어떻게 왔어?”라는 말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라는 담화 참여자와 시간과 공간이라는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가)~(다)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지역에 따라 대화의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보기 어렵다.

03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윤하’의 “어떻게 왔어?”는 미처 초대하지 못한 친구인 ‘민재’가 찾아온 것을 보고 놀라서, ‘민재’에게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어보는 질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민재’의 답으로는 전시회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와야 자연스럽다.

04 제시된 대화 상황을 통해 “불편하지는 않으세요?”라는 말의 의미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에 따라 ‘팔이 아프지는 않으신가요?’와 ‘신발이 발에 잘 맞나요?’로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형식의 발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뜻이 달라질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의사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으므로, 여성이 의사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신발 가게를 찾은 손님인 여성에게 남성이 먼저 인사를 하고, 다친 팔이 괜찮냐는 여성의 물음에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은 구면임을 알 수 있다.

③ 고객에게 신발을 신게 하는 행동을 통해 남성이 신발 가게 점원임을 알 수 있다.

⑤ “불편하지 않으세요?”라는 말이 말하는 이의 의도나 처지, 관계에 따라 각각 ‘팔이 아프지는 않으신가요?’와 ‘신발이 발에 잘 맞나요?’로 달리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가)와 (나)에서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은 시간적 배경에 따라 그 뜻이 달리 쓰이고 있다. (가)에서는 ‘이제 그만 자고 어서 일어나.’로, (나)에서는 ‘게임은 그만하고 이제 자야지.’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06 담화는 지역, 세대, 성별, 문화, 역사적 상황과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데 (가)~(다)에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차이 때문에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지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딸이 쓰는 줄인 말을 아빠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두 사람의 세대 차이 때문이다.

③ (다)에서는 한국인이 친근하게 부르는 ‘이모’, ‘언니’라는 호칭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④ (가)에서는 같은 한국어이지만 표준어를 쓰느냐 지역 방언을 쓰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⑤ 같은 언어권이라도 맥락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의사소통해야 한다.

07 (가)의 안내문에서 지역 방언을 쓴 이유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특색을 친근감 있게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특색과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08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친척이나 연상이 아니더라도 친근감 있는 어투로 상대를 부를 때 ‘이모’, ‘언니’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의 ‘나’는 이러한 우리말 문화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호칭을 어색하게 느낀 것이다. 즉, ‘이모’, ‘언니’의 사전적 의미에 기반하여 제시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09 <보기>의 연설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설자가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답인 이유 ① 연설문의 형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연설문의 형식을 안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보기>의 연설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이 단어의 뜻을 몰라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단어의 뜻을 알더라도 글에 담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없다.

④ 우리 민족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⑤ <보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루어진 인종 차별을 다루고 있지, 미국에서의 인종 차별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2) 의미를 나누는 듣기·말하기

소단원 평가

107~109쪽

- 01 ③ 02 의미 03 ③ 04 ⑤ 05 ④
06 ⑤ 07 ④ 08 ⑤ 09 ④ 10 ④
11 ④

01 (가)와 (나)의 대화에서 처음 부분의 대화 내용은 같으나 여학생의 반응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의 대화로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는 있지만, 두 개의 대화 모두 참여자들이 서로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며 원활하게 대화를 진행해 나가고 있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여학생이 재미있는 다른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남학생은 다른 농담을 하고 있다.

② (나)의 여학생이 천일염의 정확한 뜻을 궁금해하였기 때문에 남학생은 천일염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④ (가), (나)의 대화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남학생의 동일한 말에 (가), (나)의 여학생이 각각 다르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⑤ 남학생은 (가)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에서 천일염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 (나)의 대화에 참여자들의 배경지식이나 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서술형** 같은 말로 대화를 시작했는데도, 여학생의 반응에 따라 (가)와 (나)의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보아 듣기·말하기 활동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03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가치관을 존중해야 하지만, 무조건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시된 답화에서 '서우'는 처음 본 사이인데도 불쾌한 농담을 건넨 '영서'에게 화를 내고 있다. 하지만 '서우'처럼 반응하면 상대방의 기분도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을 돌려 표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04 듣기·말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집중하여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또한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용은 타당한지를 판단하며 들어야 한다.

05 '아빠'는 '아들'의 생각을 더 듣기 위해 "왜 그렇게 생각하니?"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들의 생각이 바뀌도록 유도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울타리를 고치다가 '아들'이 울타리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 '아빠'는 '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으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②, ③ '아들'은 '아빠'와의 대화 전에는 울타리가 '전쟁을 하듯이 자기 걸 지키려고 세우는 것, 이웃을 갈라놓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으나, 대화 후에는 '다른 사람을 지켜 주기 위해 세우는 것,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⑤ '아빠'는 어린 '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울새, 여우, 나무 등을 예로 들어 울타리의 긍정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06 ㉠~㉢은 모두 생명체가 세우는 울타리의 예로, 울타리를 세우는 이유를 나타낸다. ㉢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울타리가 필요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울타리를 세우는 행위의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 그 성격이 다르다.

07 '아빠'는 울타리가 서로의 영역을 확고하게 함으로써 타인과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너 아저씨' 또한 이에 동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울타리가 정확한 측량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글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아빠'가 말하는 울타리를 세워야 하는 이유로도 보기 어렵다.

② '아빠'는 생명체가 울타리를 세우는 여러 예를 들어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 인간만이 하는 행동이라는 '아들'의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

③ '태너 아저씨'와 '아빠'는 이웃사촌으로 친구인 것은 맞지만, '태너 아저씨'가 '아빠'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는 사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⑤ '아빠'는 자신이 알기로는 '태너 아저씨'가 자기네 소가 우리 옥수수밭을 망가뜨리는 걸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며, 우리 소가 자기네 밭을 망가뜨린다면 '아빠'보다 더 속상해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08 ㉢은 역설법이 쓰인 구절이다. 역설법은 겉으로 보기에 논리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통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선지 중 역설법이 쓰인 것은 ㉢이다. '향기로운'과 '꽃다운'은 아름답고 긍정적인 말인데 그 결과는 귀가 먹고 눈이 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님의 목소리'가 향기롭고 '님의 얼굴'이 꽃답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오답인 이유 ①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② 영탄법이 사용되었다.

③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④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다양한 표현 방법

참고 자료

직유법	원관념에 보조 관념을 직접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법
은유법	서로 이어 주는 말 없이 '무엇이 무엇이다'의 형식으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암시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
의인법	인간이 아닌 대상이나 관념에 인간의 생명력과 속성을 부여하여 표현하는 방법
영탄법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감정을 강조하는 방법

09 '차은'은 '엄마'가 '차은'의 남자 친구라고 믿고 있는 '영찬'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다. 이 때문에 안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엄마’가 ‘영찬’을 만날 때 새로 사 온 운동화를 신으라고 하자 화가 난 것이다.

10 이 글에서 ‘차은’은 ‘엄마’의 성의를 무시하고, 자기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11 이 글에서 ‘엄마’는 ‘차은’과 대화하려는 시도는 하지만, ‘차은’의 속상한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운동화 이야기만 하고 있다.

▶답안·이유 ⑩ ‘엄마’는 ‘차은’과 ‘동민’을 비교하고 있지 않으며, 둘 다에게 똑같이 새 운동화를 사 주고 있다.

⑪ ‘엄마’는 ‘차은’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하지만, ‘차은’의 계속되는 짜증으로 마지막에는 대화를 포기하고 ‘차은’에게 화를 내게 된다.

대단원 평가



118~123쪽

- | | | | | | |
|-------------|------------------------------------|-------------------------|---|-------------|-------------|
| 01 ① | 02 ② | 03 ① | 04 ㉠: 팔이 아프지는 않으신가요?, ㉡: 신발이 발에 잘 맞나요? | 05 ① | 06 ③ |
| 07 ① | 08 ③ | 09 ④ | 10 ⑤ | 11 ① | |
| 12 ③ | 13 ㉠: 말하는 이, ㉡: 듣는 이, ㉢: 맥락 | | | | |
| 14 ④ | 15 ⑤ | 16 지식수준 | 17 ⑤ | | |
| 18 ③ | 19 ④ | 20 울타리를 세우는 일(것) | | | |
| 21 ④ | 22 ⑤ | 23 ④ | | | |

01 담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말하는 이가 있어야 하고, 이 말을 듣는 이가 있어야 한다. 말하는 이를 화자, 듣는 이를 청자라고 하는데, 담화에서 이 두 요소는 필수 불가결하다.

02 (가)는 보건실에서 보건 선생님이 아픈 학생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때의 “어떻게 왔어?”는 ‘어디가 아프니?’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아침에 체험 활동 장소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묻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때의 “어떻게 왔어?”는 ‘무엇을 타고 왔니?’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03 같은 언어권에 속하더라도 지역, 세대, 성별, 문화 등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 등이 다를 수 있고, 같은 말도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제시된 대화에서 손님과 가게 주인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지 못한 것은 지역적 요인 때문이다. 가게 주인은 표준어인 ‘부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손님은 경상도 지역 방언인 ‘정구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04 **▶서술형**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살펴볼 때 여성의 직업은 의사임을 알 수 있고, 남성의 직업은 신발 가게 점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팔이 다친 남성에게 하는 “불편하지는 않으세요?”란 말은 ‘팔이 아프지는 않으신가요?’의 의미임을, 남성이 신발을 신어 보는 여성에게 하는 “불편하지는 않으세요?”란 말은 ‘신발이 발에 잘 맞나요?’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을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바꾸어 썼다.	☐
㉡을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바꾸어 썼다.	☐

05 ㉠과 ㉡에서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에 따라 “불편하지는 않으세요?”라는 말이 각각 ‘팔이 아프지는 않으신가요?’와 ‘신발이 발에 잘 맞나요?’로 달라짐을 알 수 있다.

06 (나)에서 엄마는 게임은 이제 그만하고 자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아들의 대답은 ‘네, 곧 잘게요.’ 혹은 ‘이것만 마무리하고 잘게요.’ 등이 적절하다.



완자샘의 풀이

(가), (나)에서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과 창문 뒤의 모습을 살펴보면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같은 말이라도 시간적 배경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

07 안내문에 ‘통영항’이라고 적힌 것으로 보아 두 학생이 찾은 관광지는 경상남도이다. 이처럼 안내문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한 것은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답안·이유 ② 지역 방언을 사용하게 되면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으나,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③ 지역 방언은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 뜻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

④ 지역 방언과 표준어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어느 한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

⑤ 안내문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언이므로 잘못된 지역 방언이라고 할 수 없다.

08 이 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연설문이다. 따라서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설문이 쓰인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9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 사실, 넬슨 만델라의 삶과 그 행적,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제 상황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10 같은 말이라도 담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달라지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시험장에서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말은 ‘부정행위를 하지 마세요.’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11 제시된 일기에서 ‘민재’와 가게 주인이 사용한 ‘이모’와 ‘언니’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관용적 의미로 쓰인 것이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민재’가 사용한 ‘이모’와 가게 주인이 사용한 ‘언니’라는 말을 어색하게 느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면 그 사람이 속한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완자쌤의 풀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에는 상대방이 속한 문화를 이해해야 해. 또 반대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우리의 문화가 담긴 관용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문화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야 해.

12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민’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신 부모님께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답화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사’에 해당한다.

13 **서술형** 답화는 말하는 이, 듣는 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나 발화의 연속체이다. 제시된 답화에서는 수민, 엄마, 아빠라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있고, 저녁이라는 시간과 집이라는 공간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4 (가)의 대화 참여자 중 남학생과 여학생은 친구 사이이므로 친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두 사람과 강연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므로 친밀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다)의 ‘서우’와 ‘영서’는 처음 만난 사이이므로 친밀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나)의 ‘엄마’와 ‘아들’은 모자 관계이므로 친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의 강연자는 우리나라의 석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강연하고 있으나, 듣는 이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② (나)의 ‘아들’은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 엄마를 조르고 있으나, 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③ (다)의 ‘영서’는 ‘서우’와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농담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대방과의 친밀도를 고려하지 않아 ‘서우’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다.

⑤ (가)의 ‘학생들’은 ‘강연자’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나)의 ‘엄마’와 ‘아들’은 서로의 의견만 내세우고 있으며, (다)의 ‘서우’와 ‘영서’는 처음 만난 사이인데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다. 이처럼 세 대화의 참여자들은 서로 제대로 의미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15 (다)의 ‘서우’는 ‘영서’가 한 농담의 의도를 고려하여 이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자기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돌려 표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16 **서술형** (가)의 강연자는 우리나라의 석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강연을 하고 있다. 그러나 듣는 이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

17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타당한 이유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데 계속 맞장구를 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8 이 글은 ‘울타리를 세우는 일’을 주제로, ‘아빠’와 대화를 하면서 ‘아들’의 생각이 바뀌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세대 차이로 인해 겪는 갈등이 주된 내용이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에서 ‘아빠’와 ‘아들’은 상대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협력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하고 있다.

②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아들’의 시선에서 서술되고 있다.

④ ‘나무가 뿌리로 울타리를 만들 듯이’(직유), ‘평화로운 전쟁’(역설), ‘울타리는 이웃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 준다’(역설)와 같은 표현 방법을 통해 ‘아빠’는 자신의 의견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에서 ‘아들’은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 울타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19 이 글에서 ‘아빠’는 ‘울새가 노래하는 것’, ‘영역 표시를 하는 여우’,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 등의 예를 들어 어린 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아빠’는 ‘아들’이 울타리를 세우는 일을 사람만이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그렇지 않아.”라고 반박하고 있다.

② ‘아빠’는 울새, 여우와 같은 동물, 나무와 같은 식물의 예를 들고 있지만,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③ ‘아빠’는 울타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식물들의 사례를 들면서 천천히 이해시키고 있다.

⑤ ‘아빠’는 ‘아들’을 압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태도로 대화를 이어 나가고 있다.

20 **서술형** (가)에서 ‘아들’은 ‘아빠’와 울타리를 고치다가 울타리를 세우는 일을 전쟁에 비유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 ‘아들’은 ‘아빠’와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울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울타리를 세우는 일(것)임을 바르게 썼다.	☐
3여절의 형식을 지켜 썼다.	☐

21 ‘앞부분 줄거리’에서 ‘차은’이 다니던 육상부가 해체되고, 다른 친구들은 서울로 전학을 갔다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서 공간적 배경이 서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차은’은 엄마가 필리핀 출신이라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게 되자, 엄마에게 골이 난 상태이다. 그래서 엄마가 묻는 말에 계속 화만 내며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다.

23 이 글에서 ‘엄마’는 필리핀인이지만 한국말을 잘하고 있다. ‘차은’이 ‘엄마’한테 ㉔처럼 말한 것은 ‘영찬’으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는데 엄마가 ‘영찬’이 만날 때 신이라고 눈치 없이 말을 했기 때문이다. “영찬이는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영찬이 때문에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라는 것을 친구들이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절 놀려서 속상해요.”처럼 ‘엄마’에게 자신이 화가 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01 ②	02 ⑤	03 ④	04 만병통치약
05 ④	06 ⑤	07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08 ③	09 ⑤	10 ③	11 ① 12 ④
13 ①	14 ④	15 ⑤	16 ① 17 ③
18 ⑤	19 어디가 아파서 왔니?	20 ②	21 ⑤
22 상황 맥락	23 ③	24 ①	25 ⑤

01 이 글은 '이덕무'의 말을 인용하여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을 뿐, '이덕무'의 일생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2 이 글의 글쓴이는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의 책 읽기를 소개하면서 책을 읽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자신이 읽은 책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지 않다.

② 글쓴이는 이덕무의 말을 인용하여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책을 읽으면 눈은 글자에 빠져들고 마음은 이치에 잠기게 되어 천만 가지 온갖 상념이 일시에 사라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책 읽기의 가치 중의 하나로 이를 소개하는 것이 이 글을 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③ 글쓴이는 책을 읽는 다양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책 읽기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이다.

④ 글쓴이는 책 읽기에 대한 '이덕무'의 생각과 글쓴이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책 읽기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책 읽기의 가치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이라 볼 수 없다.

03 (다)에서 '이덕무'는 배가 고플 때, 추울 때,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기침을 할 때 책을 읽으면 유익한 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 벼슬을 쉽게 할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이덕무'는 서자 출신이어서 벼슬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04 **서술형** "만병통치약"은 '온갖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약이나 처방'을 뜻하는데, '여러 가지 경우에 두루 효력을 나타내는 어떤 대책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글쓴이는 '이덕무'의 말을 인용하여 책을 읽을 때의 여러 유익함을 전하고 있는데, 지식을 쌓고 배고픔이나 추위도 있고 걱정이거나 근심을 해결하며 몸의 병도 낫게 한다는 점에서 책 읽기를 '만병통치약'에 비유할 수 있다.

05 관목들은 처음부터 숲의 주변부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숲이 생길 때에는 숲의 중심부에서 자라며 그 틀을 다진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숲이 완성된 후에 교목과 같이 살 수 없기에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시로미는 해발 천오백 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서 자라며, 제주도 고산 지역에서 발견되는 희귀한 나무라고 하였다.

② (나)를 통해 숲의 중심부에서 숲의 틀을 잡아 주던 관목들이 숲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은, 키가 큰 교목들 틈에선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시로미의 키는 한 뼘 정도고, 열매도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불모지가 된 땅을 다시 푸르게 만드는 '개척 식물'의 예로 쑥, 억새, 고사리를 들고 있다.

06 <보기>의 학생은 이 글을 읽고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는 글을 읽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7 **서술형**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은 산중에 있는 나무 가운데 가장 곧고 잘생긴 나무가 제일 먼저 잘려서 서까래감으로 쓰이고, 그다음 잘생긴 나무는 잘려서 기둥으로 쓰여 결국 가장 못생긴 나무가 살아남아 산을 지키는 고목 나무가 된다는 뜻이다. 이 글에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나무들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여 숲을 지켜 나가는 모습을 강조한 표현으로 쓰였다. 글쓴이는 이 말을 바탕으로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우리 사회로 확장하고 있다.

08 (나)에서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지수가 계속 증가하여 2014년~2016년에는 약 125 퍼센트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전 세계의 식품 생산량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세계 인구의 약 9분의 1이 극심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5세 이하의 영·유아 중 절반이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다)~(마)에서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 부정부패의 문제, 사막화 현상 등의 이유 때문에 기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④ (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남는데도 기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일부 기업이나 정부가 식량의 가격을 올리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⑤ (라)에서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패한 지배 계층이 가로채거나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09 이 발표문은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내용이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 조직 방법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것은, 에너지 과다 사용의 원인을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⑤이다.

오답인 이유 ①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대상의 구조와 작동 방법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조사 동기를 먼저 제시한 다음 조사 방법과 그 결과를 차례대로 제시하는 식으로 단계나 절차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처음 - 가운데 - 끝'의 구조를 따르고, 각 인물들의 주요 정보를 중심으로 조직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발표 내용을 근거로 들어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충분한데도 기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을 알 수 있는 그래프를 제시함으로써, 전 세계 식량 현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아 문제가 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청중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11 제시된 사진은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바닥을 드러낸 호수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사진을 (마)에 활용한다면, 청중이 '사막화 현상'이라는 낯선 개념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사진만으로는 사막화 현상이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③ 사진만 보서는 사막화 현상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다.

④ 사막화 현상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제시된 사진이 사막화 현상과 기아 문제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 주지는 않는다.

⑤ 사진은 사막화 현상이 숲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숲이 사라지면서 땅이 사막으로 변한 것을 보여 준 것이다.

12 발표를 할 때에는 발표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그 자료에 있는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너무 세세한 내용까지 모두 알려 준다면, 청중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주제가 무엇인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발표를 할 때에는 발표 시간을 고려하면서 발표 주제 및 목적과 관련된 핵심 정보만을 간추려 전달해야 한다.

13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은 (가)에서는 아직도 안 일어났느냐고 나무라는 말로 쓰인 반면에, (나)에서는 아직도 안 자고 있느냐고 나무라는 말로 쓰였다. 이처럼 (가)와 (나)에서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이 서로 다른 뜻을 담고 있는 까닭은, ‘엄마’가 그 말을 한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14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가리켜 상황 맥락이라고 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이란 사회·문화·역사적 상황 및 언어 공동체의 의식이나 가치 등을 뜻한다.

15 같은 말이나 글도 의사소통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냐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질 수 있다.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문구는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하세요.’ 혹은 ‘책을 깨끗이 읽으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에, 지하철역에서는 ‘차례를 지키세요.’ 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등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지하철역에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린다면, 지하철을 타거나 내릴 때 새치기를 하는 일은 모두 양심을 지키지 않는 행위로 공중질서를 해치는 일이다. 즉, 지하철역에서 양심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② 지하철역에 책을 읽을 공간이 설치된 곳도 있기는 하지만, 지하철역은 원래 지하철을 타고 내리기 위한 공간이다. 책을 깨끗이 읽으라는 것은 도서관과 같은 장소에서 사용되는 의미로 더 적절하다.

③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문구가 도서관과 지하철역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쓰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④ 지하철역에서 너무 큰소리로 떠드는 것도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지하철역이 여러 사람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드나드는 곳이라는 점에서 ‘양심을 지키세요.’가 의도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

16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친척이 아니더라도 친근하게 표현하기 위해 ‘이모’라는 말을 사용한다. 하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모르는 사람에게 ‘이모’라고 부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⑤ 이 일기를 쓴 외국인과 ‘민재’는 동일한 장소에 같이 있었으므로 지역이나 시간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일기를 쓴 외국인이 ‘민재’와 반말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기 어려우며, 세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면 ‘이모’라는 말의 쓰임을 이해할 수 있다.

④ 일기의 내용만으로는 두 사람의 성별 차이를 알 수 없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별 차이에 따라 ‘이모’라는 말을 서로 다르게 쓰는 것도 아니다.

17 (나)의 대화에서 ‘아들’은 ‘엄마’에게 주말에 무조건 놀이공원에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소원이므로 들어주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으므로, 타당한 근거를 들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18 (가)의 ‘여학생’은 ‘강연자’가 말한 ‘전형, 전답’과 같은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남학생’은 강의 주제를 전혀 모른 채로 강연을 듣고 있다. 그러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강연을 듣기 전에는 강연 주제와 관련하여 내용을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고 충고할 수 있다.

19 **서술형** 그림에서 남학생이 얼굴을 찡그린 채로 배를 부여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배가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은 보건 선생님이나 의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건 선생님(혹은 의사)의 ‘어떻게 왔어?’라는 질문은 학생이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학생이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20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말은 그 말이 쓰이는 장소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줄을 서지는 않으므로 새치기를 하지 말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시험장’에서는 ‘부정행위를 하지 마세요.’나 ‘시험 시간을 지키세요.’ 등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21 '민수'의 농담에 '세희'는 다른 농담이 더 없는지 묻고 있는 반면에, '용민'은 '천일염'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이처럼 같은 말로 시작하였는데도,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반응한 이유는 사람마다 관심이나 지식수준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다른 방식으로 의미 공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대화가 진행되기도 한다.

22 **서술형** 답화에서 상황 맥락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가리키는데, 같은 말이라도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므로 표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이 몇 시니?"라는 말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뭐 하니?", "밤이 늦었는데 왜 안 자니?", "약속 시간이 몇 시인데 왜 이제야 왔니?"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23 듣기·말하기는 담화 참여자인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서로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 내용을 창조하고 의미를 공유하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그러므로 의미 있고 즐거운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4 '아빠'와 '아들'은 울타리 기둥을 고치면서 '울타리'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아들'은 처음에는 '울타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만, '아빠'와 대화를 나누면서 '울타리'가 왜 필요한지 공감하게 된다.

25 이 글에서 '아빠'는 '아들'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아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아들'은 '아빠'의 말에 관심을 보이면서 적절히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이처럼 '아빠'와 '아들'은 협력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면서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ㄱ. '아빠'는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만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ㄴ. '아빠'와 '아들'은 '울타리를 세우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뿐, 다른 주제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지 않다.

중간고사 2회



130~135쪽

01 ⑤	02 ④	03 가치, 생활화	04 ⑤
05 ④	06 ①	07 ⑤	08 ③
09 ⑤	10 ⑤	11 ②	12 ②
13 ⑤	14 ④	15 ⑤	16 ⑤
17 ④	18 딸이 아빠 세대가 모르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 남아공	19 ①	20 ④
21 ③	22 ①	23 ⑤	24 ②
25 울타리는 이웃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 준다.			

01 이 글에서 글쓴이는 '이덕무'의 말을 인용하여 책 읽기의 가치와 책을 읽자는 당부만 전하고 있을 뿐, 자신이 어떤 유형의 책을 좋아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다)를 통해 '이덕무'가 서자 신분 때문에 벼슬을 할 수도 없었고 매우 가난한 처지였음을 알 수 있다.

②, ③ (라)를 통해 '이덕무'가 책을 읽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마음도 다스릴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마)에서 글쓴이는 책 읽기의 가치를 '만병통치약'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02 (다)에서 글쓴이는 '이덕무'가 서자 출신이어서 벼슬을 할 수 없었고 가난하여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서자인 해도 양반은 양반이라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식구들의 끼니를 책임졌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배고프고 춥고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에도 책을 읽은 것에서 '이덕무'가 늘 책을 가까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라)를 통해 '이덕무'가 슬픈 일이 닥쳐 막막할 때에도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글쓴이는 '이덕무'가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의 '간서치'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03 **서술형** 이 글의 글쓴이는 '이덕무'의 말을 인용하여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 읽기를 생활화할 것을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04 이 글에서 글쓴이는 '이덕무'의 예를 들어 배고프고 춥고 골치 아픈 일이 있고 감기까지 걸려도 책을 읽으면 좋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모든 좋지 않은 상황들이 하나도 없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황이면 그 때는 책을 읽기에 더없이 좋은 때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결국 책을 읽기에 좋은 때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언제 어느 때나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열거'는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낱말이 죽 늘어놓는 것을 말한다. '추우나 더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에서 열거법이 사용되었다.

② 전체적으로 읽는 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어휘로 쓰여 있다. 또한, 글쓴이는 '어떤 한 가지 일에 몸이 열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마니아'와 같은 외래어를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까막눈'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의 눈.'이라는 뜻으로, '이덕무'는 자신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하고 있다.

④ '만병통치약'은 이 글에서 '책 읽기'의 유익함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05 (라)에서 산불로 폐허가 된 땅의 첫 방문자가 '짜리나무'이며, '짜리나무'가 불난 자리를 녹화하는 주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짜리나무'는 관목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글쓴이는 얼마 전 한라산에 올라 해발 천오백 미터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시로미를 발견했다고 하였다.

② (라)에서 글쓴이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대접받는 축에 끼지 못하는 고사리 역시'라고 언급하고 있다.

③ (라)에서 '싸리나무'는 울타리나 빗자루 정도로밖에 사용되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나)에서 관목은 숲이 생길 때 가장 중심부에서 그 틀을 잡아 주고, 어느 정도 숲이 완성되면 그 자리를 키 큰 나무들에게 내준다고 하고 있다.

06 이 글의 글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들에게서 깨달음을 얻고 있으며, <보기>의 말하는 이는 동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고 웅크렸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즉, 두 작품은 모두 자연물에서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답안·이유 ② 이 글의 글쓴이는 현재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보기>의 말하는 이도 현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둘 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글과 <보기>는 모두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자연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이 글에서는 자신의 삶을 어떤 식으로 꾸려 나갈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④ '관용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발이 넓다'는 실제로 발의 크기가 넓다는 뜻도 있지만, 관용적으로 '사교적이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를 뜻한다. 이 글의 글쓴이와 <보기>의 말하는 이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는 있지만, 이와 같은 관용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⑤ 이 글의 글쓴이는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겠다고 다짐하고 있지, 자기의 이익보다 다른 이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다. <보기>의 말하는 이 역시 다른 이를 포용하는 자세를 갖추고 싶다고 했지,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하지는 않았다.

07 글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에서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남들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일지라도, 자신의 삶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살겠다고 (마)에서 다짐하고 있다.

08 ㉠, ㉢, ㉤, ㉥는 모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제 말은 바소임을 묵묵히 다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존재들이다. 반면에 ㉡는 관목이 숲의 틀을 잡아 주면 그들을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어내는 존재로 나머지 넷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09 이 발표를 한 학생은 (마)에서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법을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적 차원이나 국가적 차원의 해결 방법을 살펴보았다고는 할 수 없다.

▶답안·이유 ① (가)에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읽고 이 발표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발표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

② (나)와 (다)에서 '유엔 세계 식량 계획' 및 '유엔 식량 농업 기구'와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③ (다)에서 기아 문제의 원인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한다고 했고, (라)에서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였으므로 앞으로 몇 가지의 원인을 더 이야기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바)에서 법정 스님의 말을 인용하여 발표 주제를 강조하고 청중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10 (라)에서 사막화 현상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줄어들어 식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기술 보급은 적절한 해결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11 발표자는 (나)에서 세계적으로 기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밝히고 있으며, (다)에서 전 세계적으로 식품 에너지 공급량이 충분한데도 수많은 사람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는 '문제 제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용어를 정리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12 (나)의 중심 내용은 기아 문제의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 주기 위해 발표자는 전 세계에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와 비율을 나타낸 '세계 기아 실태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을 말로만 전하기보다 실제로 한눈에 보여 주는 지도를 같이 제시한다면 발표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13 제시된 자료는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지수 그래프'이다. 이 자료를 보면, 연도별 식품 에너지 공급 증가 추세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 대비 식품 에너지 공급 비율도 한눈에 알 수 있다. 따라서 ⑤와 같은 목적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14 담화는 말하는 이(글쓴이)와 듣는 이(읽는 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문장), 또는 발화의 연속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④가 적절하다.

15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여성의 직업은 '의사'이고, 남성의 직업은 '신발 가게 점원이나 사장' 정도로 볼 수 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불편하지는 않으세요?"라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두 사람의 직업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의사'가 말할 때는 치료한 팔이 아프지 않은지, '신발 가게 점원'이 말할 때는 고른 신발이 발에 잘 맞는지를 뜻하게 되는 것이다.

16 상황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뜻한다. 사회·문화·역사적 상황 및 언어 공동체의 의식이나 가치 등으로 구성되는 것은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17 제시된 안내문에는 지역 방언과 표준어가 모두 쓰여 있다. 지역 방언으로 쓰면 그 지역의 분위기가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

의 방언을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어로 지역 방언을 풀어 쓴 것이다.

① 표준어를 쓴다고 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일한 지역의 사람들이 동일한 지역 방언을 쓸 경우에 친근감을 더 잘 느끼게 된다.

② 해당 지역의 특색과 분위기를 드러내려면 그 지역에서만 쓰이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낫다.

③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표준어보다 지역 방언을 사용하게 된다.

⑤ 지역 방언을 쓰는 지역이나 표준어를 쓰는 지역 모두 같은 언어권에 속하므로, 표준어 풀이를 함께 제시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18 **서술형** '남아공'은 '남아서 공부한다.'라는 뜻의 신조어로, 젊은 세대에서 흔히 쓰는 말이다. 하지만 '딸'은 '아빠'가 이러한 젊은 세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딸'과 '아빠'가 세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썼다.	☐
'아빠'가 이해하지 못한 낱말이 '남아공'임을 썼다.	☐

19 제시된 일기를 쓴 외국인은, '이모, 언니'라는 호칭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을 어색하게 느끼고 있다. 이는 '이모, 언니'라는 말의 사전적 뜻은 알고 있었지만, 친척이나 연상이 아니더라도 친근감 있는 어투로 상대를 부를 때 '이모, 언니'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 우리의 문화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말은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문화를 몰랐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므로, ①과 같이 한국말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우리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 보는 것이 적절하다.

20 제시된 연설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만연했던 인종 차별을 극복하고 화합의 길로 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연설자가 이러한 연설을 하게 된 배경과 연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21 제시된 담화에서 '강연자'는 우리나라의 석탑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청중인 '학생'은 '전형', '전답'과 같은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강연자'는 청중인 '학생'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말을 해야 의미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22 '영서'는 '서우'와 빨리 친해지려는 목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친구와는 친밀도가 낮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서우'가 기분 나쁠 만한 농담을 건네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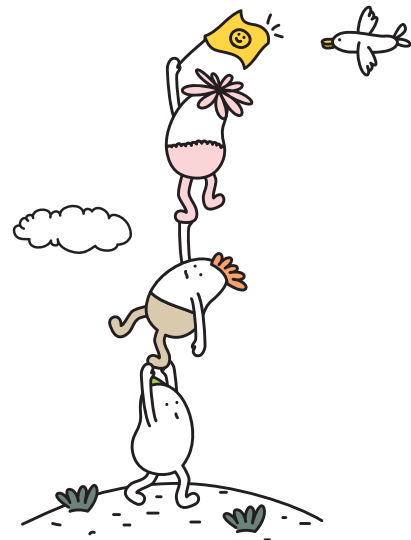
23 (가)의 '아빠'는 '아들'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들'과 원활하게 대화가 진행되도록 협력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와

달리 (나)의 '차은'은 '엄마'와 협력적으로 대화를 나누려 하기보다 '엄마'의 말에 짜증을 내거나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있어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의 '아빠'는 (나)의 '차은'에게 ⑤와 같은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24 (나)의 '엄마'는 '차은'을 위해 신발을 사 왔지만, '차은'은 차갑게 반응하기만 한다. 하지만 '엄마'는 '차은'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사 온 신발을 신으라고 계속 말을 건넨다. 두 사람의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엄마' 역시 '차은'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먼저 헤아리려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25 **서술형** '아빠'와 '아들'이 울타리를 세우는 일로 대화를 나누기 전, '아들'은 울타리를 전쟁에 비유하면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아빠'는 '아들'의 이러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 '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울타리'를 세우는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아들'이 대화를 나눈 후에는 왜 '울타리'를 세워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울타리에 대한 '아빠'의 말을 인용하여 썼다.	☐
제시된 형식에 맞게 썼다.	☐



(1) 창의적인 발상

확인 문제

143쪽

143쪽 1 ④ 2 ⑤ 3 ② 4 ④

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현재 입과 이별한 상태이며, 헤어진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자신의 심정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이 시는 3음보의 규칙적인 음보와, '먼 후일', '당신이', '잊었노라'와 같은 시어의 반복, '.....면잊었노라'와 같은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참고 자료

수미 상관(首尾 相關)

'머리와 꼬리, 처음과 끝이 서로 이어 통함'을 뜻하는 말로, 운문 문학에서 첫 번째 행이나 연을 마지막 행이나 연에서 다시 반복하는 기법이다. 시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며,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3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여전히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음을 반대로 표현하여 자신의 애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을 향한 말하는 이의 정서는 '그리움'이다.

4 <보기>는 말하는 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고, ㉠은 말하는 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 시는 ㉠과 같이 반어 표현을 사용하여 '당신'을 잊지 못하는 말하는 이의 애절함을 더욱 강조하여 전달하고 있다.



완자쌤의 풀이

반어 표현은 그 안에 담긴 의도를 쉽게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작가가 진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여 읽는 이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어.

확인 문제

147쪽

147쪽 1 ④ 2 ⑤ 3 ② 4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

1 이 시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와 같은 역설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말하는 이의 긍정적 자세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이 시는 연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 단연시이지만, 시행은 모두 14행으로 구분되고 있다.

② 이 시는 거의 우리말로만 쓰여 있어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③ 이 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스스로 봄 길이 되어 걸어가는 사람 한 명으로, 여러 명의 인물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이 시에서는 주로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고 있다. 강물이 멈추고, 새들이 날아가고, 꽃잎이 흩어지는 것은 주로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다. 또한 '보라'라는 말 역시 시각적인 심상과 연결된다.

2 '봄'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돌아나는 계절로, 시련이 끝난 뒤에 오는 희망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에서도 '봄 길'은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한 말하는 이가 걸어갈 미래의 희망찬 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 시는 사랑이 끝난 절망적인 상황을 길이 끝난 상황으로 표현하는 한편, 여러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즉, 강물이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이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이 흩어진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4 **서술형** '길이 끝나는 곳'은 사랑이 끝난 곳으로 말하는 이에겐 절망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길이 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말하는 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새로이 살아갈 길(사랑)이 있다고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절망', '희망', '긍정' 등의 말을 사용하여 썼다.	☐
'~있다.'의 형식으로 썼다.	☐

소단원 평가

156~159쪽

01 ③ 02 ① 03 잊었노라 04 ③ 05 ④
06 ④ 07 봄 길 08 ⑤ 09 ② 10 ④
11 ⑤ 12 ② 13 ⑤ 14 ⑤ 15 ②
16 ③ 17 ⑤ 18 ②

01 이 시는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인 '-면'을 사용하여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02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당신'이 자신을 찾아올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고, '잊었노라'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아직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로 보아 말하는 이는 '당신'과 이별한 상태이며,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03 **서술형** 이 시에서 '잇었노라'라는 표현은 표면적으로 '당신을 잊었다.'는 의미이지만, 그 이면에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각 연의 끝부분에 반복되는 이 표현은 말하는 이의 정서를 심화함으로써, '당신'을 잊지 못하는 말하는 이의 마음을 간절하게 전하고 있다.

04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먼 훗날 '당신'을 만나게 된다면 그 때에 '당신'을 잊었다고 대답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먼 훗날에도 여전히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하는 이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다.

05 의성어는 '멍멍', '썹썹'처럼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이고, 의태어는 '아장아장', '번쩍번쩍'처럼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이다. 같은 말이 반복되는 의성어와 의태어는 운율을 느끼게 하지만, 이 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인 이유 ① 이 시는 '먼 훗날', '잇었노라'와 같은 시어를 〈보기〉는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과 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

② 이 시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과 같이 하나의 시행을 세 번 끊어 읽을 수 있다. 〈보기〉 역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처럼 하나의 시행을 세 번 끊어 읽을 수 있다.

③ 이 시는 '.....면잇었노라'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고, 〈보기〉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우리다.'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⑤ 이 시는 대체로 3·3·4조의 글자 수가 반복되는 반면에, 〈보기〉는 대체로 7·5조의 글자 수가 반복되고 있다.

06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단정적이고 의지적인 어조로 '봄 길을 걷어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 말하는 이가 시적 대상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인 이유 ① 이 시는 '길이 끝나는 곳'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반드시 새로이 살아갈 '길이 있다'라며 희망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② 이 시는 '길이 끝나는(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는 사람이 있다'처럼 비슷한 시구를 반복하고 있다.

③ 이 시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을 '강물', '새들', '꽃잎'과 같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⑤ 이 시에서는 '보라'와 같은 명령형의 시어를 통해 말하는 이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07 **서술형** '봄'은 '겨울'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 낸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계절이다. 그렇기에 '봄'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느낌을 전해 준다. 또한 길이 끝나는 곳에도 새로운 길이 있다는 점에서 '길'은 미래와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봄 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말하는 이의 희망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 상징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08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고, 사랑이 끝난 곳에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이 시에서 '봄 길을 걷어가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뜻할 뿐,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 보기 어렵다.

② 말하는 이는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현실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③, ④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말하는 이의 의지는 드러나고 있지만, 성공하고 싶어 한다거나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09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은 길이 끝나고 사랑도 끝나 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봄 길'이 되어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절망적 상황이 아닌 극복 방법에 들어가야 한다.

10 ㉠은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는 모순적 표현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을 보여 주고 있다. '모두 똑같이 못나서 실은 아무도 못나지 않았다' 역시 모순되는 표현을 통해 비록 겉모습은 볼품없더라도 내면의 진실한 가치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A는 B이다.'의 형식인 은유법을 사용하여 원관념인 '나'를 보조 관념인 '나룻배'에 비유하고 있다.

②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형으로 표현하여 시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감정 이입이 사용된 시구로, 말하는 이의 감정을 시적 대상인 '산 평'이 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말하는 이가 '그대'를 생각하는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닌데 마치 사소한 일처럼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1 (가)와 (나)는 둘 다 자유시로, 시를 읽을 때에는 시의 음악적 요소, 회화적 요소, 의미적 요소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한다. 시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창작할 수는 있지만, 함축적인 언어로 재구성하여 형상화하기 때문에 시인의 실제 경험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

12 (가)는 '.....면잇었노라'와 같은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나) 역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이 있다'와 같은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나)에서는 3~6행은 11~14행에서 변주하여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④ 말하는 이에게 일어날 일을 가정하여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가)이다.

③, ⑤ 단정적이고 의지적인 어조로 말하면서, 역설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이다.

13 (가)는 각 연의 2행에서 '잇었노라'라는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말하는 이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말하는 이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말하려면 '당신을 잊을 수 없다.', '당신을 잊지 못한다.'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②, ④ 말하는 이는 '당신'과 이별한 상태이고, '당신'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을 뿐,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나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지 않다.

③ 이 시에서는 말하는 이의 시선이 이동하거나 공간이 움직이는 듯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14 ㉠에 쓰인 ‘-노라’는 (동사 어간이나 어미 ‘-었-’, ‘-겠-’ 뒤에 붙어) (예스러운 표현으로) 해라할 자리나 간접 인용절에 쓰여, 자기의 동작을 장중하게 선언하거나 감동의 느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를 뜻한다. 즉, ㉠은 잊었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 ‘-라’는 하라체를 사용할 자리에 쓰여,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청자나 독자에게 책 따위의 매체를 통해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즉, ㉡은 명령형으로 말하는 이의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오답인 이유 ① ㉠은 먼 훗날인 미래에 ‘당신’이 말하는 이를 찾을 경우에 하는 말이므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없고, ㉡은 삶의 진리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지 않다.

② 반전은 일의 형세가 뒤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의 앞과 뒤 혹은 ㉡의 앞과 뒤의 형세가 뒤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③ ㉠과 ㉡은 둘 다 시적 대상이 아니라 말하는 이가 말한 것이다. ㉠은 ‘당신’에게 하는 말이고, ㉡은 불특정한 사람(독자)에게 하는 말이다.

④ ㉠은 ‘당신’을 잊지 못하겠다는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것으로 긍정적인 의미라 보기 어렵다. ㉡은 말하는 이의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

15 (가)는 1연~3연에서 ‘……면 ……잊었노라’와 같은 구조의 시구를 반복하고 있으며, (나)는 3행과 5행에서 ‘……데’와 같은 구조의 시구를, 4행과 6행에서 ‘……까.’와 같은 시구를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가)와 (나)는 구조가 비슷한 시구를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음악적 효과를 주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는 ‘면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와 같이 3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지만, (나)는 3음보나 4음보로 끊어 읽기 어렵다.

③ 수미 상관은 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구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는 리듬감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하며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④ (나)와 (다)에서 서로 반대되는 관계에 있는 시어나 시적 대상은 찾을 수 없다.

⑤ (나)와 (다)의 연의 구분은 없지만 산문처럼 줄글 형식으로 쓰여 있지는 않으며,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

16 (가)의 2연과 3연에서 ‘당신’을 잊었다고 대답하는 말하는 이를 ‘당신’이 나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을 뿐, ‘당신’이 나무라는 것을 겁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② (가)와 (나)의 말하는 이는 이별한 ‘당신’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

④ (나)의 말하는 이는 ‘당신’을 잊지 못하는 자신이 싫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바보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며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⑤ (나)의 말하는 이는 ‘미운 당신’이라고 표현하며 ‘당신’을 원망하는 마음을 내비치고 있다.

17 <보기>는 (가)를 줄글로 쓴 것으로, 내용은 같지만 표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가)는 3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지만, <보기>는 그렇지 않다.

18 ㉠은 말하는 이가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다. (나)의 말하는 이 역시 ‘당신’을 잊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라며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고 있다.

(2) 비판적인 표현

확인 문제

● 162~173쪽

163쪽	1 ㉠	2 ㉣	3 ㉤	4 마치 큰 수 개와 조그만 고양이가 마주 만난 형국이었다.
165쪽	5 ㉤	6 ㉡		
167쪽	7 ㉤	8 ㉤		
169쪽	9 ㉤	10 ㉣		
171쪽	11 ㉠	12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13 ㉡			
173쪽	14 ㉢	15 ㉣	16 ㉡	

1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서술자인 ‘나’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주인공인 ‘박 선생님’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②, ④ 이 글의 중심인물은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이다. ‘나’는 이 글의 서술자로, 작품 안에서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③ ‘나’는 주인공의 말과 행동만을 관찰하며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 주인공의 내면 의식까지는 알지 못한다.

⑤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소설의 시점

1인칭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의 주인공인 ‘나’가 자신이 겪은 일과 내면 의식까지 직접 이야기함.
	1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속의 ‘나’가 주인공을 관찰하며 그에 대해 이야기함.
3인칭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이야기함.
	작가 관찰자 시점	작품 밖의 서술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이야기함.

2 ‘발단 - ①’에 일본 정치 때 ‘박 선생님’은 혈서로 지원병을 지원했지만 키가 작다는 이유로 낙방되어 땅을 치고 울었다

고 서술되어 있다. 즉, 스스로 군에 지원한 것이지 강제로 징병당할 뻔했던 것은 아니다.

3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박 선생님’의 외모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나’는 ‘박 선생님’을 희화화함으로써 ‘박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 **서술형** ‘발단-③’에서 ‘나’는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이 마주 서서 싸우는 모양이 “마치 큰 수캐와 조그만 고양이아 마주 만난 형국이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을 비유하는 말을 찾아 썼다.	☐
두 선생님이 싸우는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까지 찾아 썼다.	☐

5 ‘전개-2’ 부분에서 “학교에서고 학교 밖에서고 조선말로 말을 하다 선생님에게 듣키는 날이면 경치는 판이었다.”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조선 사람끼리 있을 때에는 조선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강 선생님’은 일본 말을 할 수 있음에도, 교실에서 공부할 때나 다른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때 빼고는 학생들에게 일본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 볼 때, ‘강 선생님’은 되도록 조선말을 썼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②, ③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우리의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조선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였다. ‘박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일본 말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스스로도 일본 말만을 사용한 것은 바로 일제의 이러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주재소의 순사, 면의 면 서기, 도 평의원, 군이나 도에서 연설하러 온 사람들처럼 관료나 특별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일본 말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였다.



완자쌤의 풀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의 민족정신을 말살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대표적인 민족정신 말살 정책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 우리말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과, 우리말로 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한 거야. 이렇게 민족정신이 말살되면 식민지인 조선을 더욱 쉽게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지. 그래서 ‘강 선생님’은 일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애쓰진 못하더라도,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하려고 되도록 일본 말을 쓰지 않고 조선말을 쓰려 했던 거야.

6 ‘나’가 ‘상준’과 싸울 때 ‘박 선생님’이 조선말로 싸움하는 녀석이 어디 있냐고 나무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나’가 친구와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조선말을 사용한 것 때문에 혼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나’는 일본 왕이 항복했느냐고 물으면서 ‘박 선생님’을 놀리는 ‘대석 언니’의 말과 행동을 전하고만 있을 뿐, ‘나’가 직접 일본을 맹신했던 ‘박 선생님’에게 비아냥거린 것은 아니다. ‘박 선생님’에게 비아냥거린 사람은 ‘대석 언니’이다.

오답인 이유 ① 서술자인 ‘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미숙한 어린아이여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②, ③ ‘나’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④ ‘박 선생님’이 일본이 기어코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과 달리 일본이 전쟁에 지자, ‘나’는 도무지 모를 일이라며 의아해한다. 이처럼 ‘나’가 일본이 전쟁에 진 것을 의아해한 것은, ‘나’가 스스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어린아이여서, 선생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8 ‘대석 언니’가 일본이 패망한 것을 비아냥거리자, ‘박 선생님’은 일본 말로 ‘대석 언니’를 나무란다. 일본이 패망한 상황에서도 ‘박 선생님’이 여전히 일본 말을 쓰는 이유는, 일본의 패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9 ‘강 선생님’은 되도록 조선말을 쓰려고 노력하면서 소극적이나마 일제에 저항하였고, 조선이 독립되자 진심으로 감격하고 기뻐하였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일본 말만을 고집하고 학생들에게도 일본 말만 쓰라고 강요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다. 더구나 일본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도 조선의 독립을 기뻐하기보다 일본이 패망한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박 선생님’은 ‘강 선생님’ 앞에 떳떳할 수 없었고, 결국 ‘강 선생님’의 꾸지람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완자쌤의 풀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이라는 긴 시간 우리 민족은 일제에 식민 지배를 당해야만 했다. 그 기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도 많았지만, 일제에 협력하며 개인적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도 많았지. ‘박 선생님’은 후자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 그들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을 등에 업고 위세를 누렸지만, 결국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그런 위세는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어. 또한 민족을 배신한 죄가 있기 때문에 민족 앞에 떳떳할 수도 없었던 거지.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박 선생님’이 ‘강 선생님’의 꾸지람에 왜 꼼짝 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10 조선이 해방된 사실에 감격하여 기뻐하는 ‘강 선생님’과 달리, ‘박 선생님’은 일본이 패망한 것에 근심하며 기가 죽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고려할 때 ‘박 선생님’이 “자상히 알아보기나 하구서…….”라고 말하며 말꼬리를 흐리는 것은 일본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일본의 패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11 ‘박 선생님’은 미국 말을 공부한 지 일 년 만에 비국 병정의 통역을 맡을 만큼 미국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 선생님’이 쉽게 미국 말을 체득한 것은 중학교 때 조금 배웠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오답인 이유 ② ‘강 선생님’은 소극적이거나 일제에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일제에 저항하거나 독립을 위해 노력한 것은 아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로서 이런 점에 죄책감을 느끼고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③, ④ ‘강 선생님’이 ‘박 선생님’에게 함께 태극기를 그리자고 달려자 ‘박 선생님’도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한다. 이처럼 두 사람이 함께 태극기를 그린 이후로 서로 사이가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박 선생님’은 해방이 되자 그렇게 찬양하던 일본을 적대시하고, 조선이 역사가 깊고 훌륭한 나라라고 가르친다.

12 서술형 ‘강 선생님’은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박 선생님’에게 해방된 조국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자고 권유하였다. ‘박 선생님’은 이러한 ‘강 선생님’의 회유에 일본이 패망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강 선생님’과 함께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13 ‘박 선생님’은 미국 병정에게 통역을 해 주면서 미국 병정으로부터 양복, 통조림, 과자 등을 얻는다. 이로 볼 때, ‘박 선생님’은 당시에 영향력이 커진 미국에 붙어 이익을 취하려고 미국 말을 공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

14 해방 전까지 일제의 식민 지배를 당하던 우리 민족은, 일제의 억압으로 인해 우리말(조선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해방이 되면서 일제의 탄압에서 벗어난 우리 민족은 우리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은 미국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미국에 식민 지배를 당하거나 우리말 사용을 억압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말이 국어가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강 선생님’이 빨갱이로 몰려 파면을 당했다는 점에서 당시에 이념의 대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빨갱이’는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② ‘박 선생님’의 말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양식, 기계, 자동차, 석유, 설탕, 구두 등을 원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⑤ 교장 선생님이었던 ‘강 선생님’이 파면을 당하고 바로 ‘박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된 점, 어른들이 ‘박 선생님’이 ‘강 선생님’을 꼬아냈다고 한 점 등에서 ‘박 선생님’이 ‘강 선생님’을 모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5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지조 없이 이편에 붙었다 저편에 붙었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이익을 좇아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박 선생님’의 행동을 풍자하기에 적절한 속담이다.

오답인 이유 ①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라는 속담은 조그만 바늘구멍으로 넓디넓은 하늘을 본다는 뜻으로,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는 매우 좁은 소견이나 관찰을 비꼬는 말이다.

②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은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③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은 손해를 크게 볼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마땅치 아니한 것을 없애려고 그저 덤비기만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라는 속담은 더 바스락거리는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나무란다는 뜻으로, 자기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남의 허물만 나무라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6 ‘박 선생님’은 해방 전에는 일본을 찬양하였지만, 해방 후에는 미국을 찬양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일관성 없이 행동하는 ‘박 선생님’의 모습에, ‘나’는 ‘박 선생님’을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다.

소단원 평가



182~187쪽

- | | | | | |
|---|-------------|-------------|-------------|-------------|
| 01 ③ | 02 ① | 03 ③ | 04 ② | 05 ⑤ |
| 06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 | | | |
| 07 ① | 08 ⑤ | 09 ④ | 10 ② | 11 ③ |
| 12 아무튼 뽀뽀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 | | | | |
| 13 ② | 14 ① | 15 ④ | 16 ② | 17 ② |
| 18 ⑤ | 19 ⑤ | 20 ④ | 21 ⑤ | |

01 (라)에서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양속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둘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박 선생님’이 일본 정치 때 일본군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는 것에서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 글의 서술자는 작중 인물인 ‘나’로 주인공인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을 관찰하고 있다.

④ (나)에서 ‘박 선생님’의 두 눈이 사납게 생겼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박 선생님’의 성격이 사납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나)에서 ‘박 선생님’의 외모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박 선생님’을 희화화하고 있다.

02 서술자인 ‘나’는 ‘박 선생님’을 키가 작고 사나우며 날카로운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강 선생님’은 키가 크고 순하게 생기고, 마음이 넓고 여유로운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나’는 ‘박 선생님’은 부정적으로, ‘강 선생님’은 긍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박 선생님’의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03 ‘나’가 ‘강 선생님’에 대해 “눈은 더 순하고, 허허 웃기를 잘하고, 별로 성을 내는 일이 없고, 아무하고나 장난을 잘하고”라고 서술한 부분에서, ‘강 선생님’이 장난기가 많고 잘 웃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04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에 자원하였다가 낙방하자 안타까움에 땅을 치고 울었다는 것에서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박 선생님’이 체력 조건이 안 되는 데도 지원병을 지원한 것은 도전 정신보다는 일본에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③ '박 선생님'은 체격 검사에서 키가 작아서 낙방하게 되자 땅을 치고 울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박 선생님'이 자신의 외모에 자부심이 강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④ 일제가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삼은 것 자체가 부조리한 일인데, '박 선생님'은 여기에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을 찬양하고 있으므로 정의로운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박 선생님'은 현재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찾는 인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인물이었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을 것이다.

05 '강 선생님'은 '박 선생님'과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일본 말을 사용해야 할 때에만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일본 말이 서툴러서 조선말을 쓴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어린아이인 학생들이 보기에 '강 선생님'은 일본 말을 못하는 선생님이 아니다. 이는 '강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있는 일제에 자기 나름대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우리 조선을 지지리 못살게 굴고 하시하구 피를 빨아 먹구 하던 일본"이라고 말한 것에서 '강 선생님'이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④ '박 선생님'은 조선인끼리 있을 때에도 반드시 일본 말을 사용하게 했고, 조선말을 쓰는 학생들은 엄하게 벌을 주었다. 이로 볼 때 '박 선생님'은 일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강 선생님'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일본 말을 해도 자신은 학생들에게 조선말을 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06 **서술형** 일제 강점기 때 '박 선생님'은 '강 선생님'과 달리 일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친일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해방 소식을 들은 이후에도 조국이 해방된 사실을 기뻐하며 스스로의 지난 행적을 반성하기보다 일본이 패망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강 선생님'은 '박 선생님'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려고 [A]와 같이 말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친일'이라는 표현을 썼다.	☐
'박 선생님'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는 의도를 썼다.	☐

07 '강 선생님'은 일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던 '박 선생님'을 강하게 비판하지만, 전과 다르게 '박 선생님'은 얼굴만 벌게질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다. 이는 자신이 추종했던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조선이 해방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08 '자상히'는 '찬찬하고 자세히.'라는 뜻과, '인정이 넘치고 정성이 지극히.'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맥락상 '찬찬하고 자세히.'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09 조선이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한 것은 알 수 있지만, 미국이 일제처럼 조선을 속국으로 삼으려 했는지는 이 글만으로는 알 수 없다.

오답인 이유 ① '강 선생님'이 '빨갱이'로 몰려 파면을 당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⑤ 조선이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이 되었다는 '박 선생님'의 말과, 미국 병정이 버 공출을 감독하려 온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박 선생님'이 미국 양복을 얻어 입고, 미국 통조림이나 과자를 얻어 먹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문물이 조선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라)에서 '박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미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왕보다 훌륭하다고 가르쳐 주었다. 이에 대해 '나'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국가를 불러야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미국의 국가를 불러야 하나 보다고 생각한 것일 뿐, '박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미국 국가를 부르게 한 것은 아니다.

11 '박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는 일본을 찬양하였지만, 해방된 이후에는 일본을 비난하고 미국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이 '박 선생님'이 일본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은, (나)에서 '박 선생님'이 미국 병정에게 양복과 통조림, 과자 등을 얻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힘이 있는 쪽에 붙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작가는 서술자인 '나'의 입을 빌려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박 선생님'을 이상하다고 평가함으로써, '박 선생님'을 풍자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박 선생님'은 시류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인물이므로, 한결같다고 보기 어렵다.

② '박 선생님'이 그때그때 행동과 태도를 달리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태도를 현실에 충실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 글의 주제 의식과 동떨어진 평가라고 할 수 있다.

④ 이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박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힘이 있는 쪽에 붙어 개인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⑤ '박 선생님'은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있을 뿐, 미국의 장점을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을 꾀한 것은 아니다. 또한 미국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12 **서술형** 서술자인 '나'는 '박 선생님'이 왜 해방 전에는 일본을 찬양하다가 해방 후에는 일본을 욕하고 미국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박 선생님'을 이상한 선생님이라고만 평가하고 있다. 이는 서술자가 아직 판단이 미숙한 어린아이기 때문인데, 이처럼 서술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함으로써 풍자의 대상인 '박 선생님'을 더욱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13 (가)~(라)는 힘 있는 편에 붙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박 선생님'이라는 인물을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고, (마)는 조선 후기의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있는 사설시조이다. 두 작품 모두 부정적인 대상을 희화화하여 비꼬고 있는 풍자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오답인 이유 ① '물질 만능 주의'란 경제적, 물질적인 가치만을 중시하고, 인간을 경시하는 주의를 말한다. (가)~(라)에서 '박 선생님'이 다른 인간을 무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마)에서 '두꺼비'도 물질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가)~(라)의 서술자는 아직 상황 판단이 미숙한 어린아이다. 독자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박 선생님'이라는 인물을 파악하게 되므로, '박 선생님'을 더욱 비판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④ (가)~(라)의 말하는 이는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 중 하나인 '나'로 작가가 창작한 인물이다. 반면, (마)의 말하는 이는 작품 안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작품을 창작한 작가 자신으로 볼 수 있다.

⑤ (가)~(라)의 중심인물은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으로 동일하다.

14 <보기>를 통해 '백성'과 '지방의 탐관오리', '중앙의 고위 관료' 간의 권력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즉, '지방의 탐관오리'는 약자인 '백성'에게는 강자로서 군림한 반면에, '중앙의 고위 관료' 앞에서는 약자로서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권력 관계를 고려할 때, '파리'는 '백성'을, '두꺼비'는 '지방의 탐관오리'를, '백송골'은 '중앙의 고위 관료'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15 '허장성세'는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을 뜻하는 말로, '백송골'을 보고 놀라 도망쳤으면서도 자신이 잘나서 명이 들지 않았다고 자화자찬하는 '두꺼비'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역사사지(易地思之):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② 전전긍긍(戰戰兢兢):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
③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⑤ 인과응보(因果應報):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재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는 일.

16 이 글의 갈래는 해방 전후, 어느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현대 소설이다.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작한 글이지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담았다는 점에서 간접경험의 폭을 넓혀 준다.

17 (가)에서는 '박 선생님'의 외모를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두꺼비'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18 (나)를 통해 '박 선생님'은 조선의 독립을 기뻐하기보다, 일본이 패망한 현실만을 안타까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은 '강 선생님'의 회유에 어쩔 수 없이 일본이 패망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박 선생님'의 심리를,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하는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19 (가)는 '백송골'에 놀라 도망치는 '두꺼비'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두꺼비', 즉 지방의 탐관오리의 이중성을 풍자한 작품이다. 풍자는 대상을 비웃으면서 대상의 부정적인 면모를 폭로하는 표현 방법이라는 점에서 대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사실시조는 조선 후기에 주로 창작되었다.
② 사실시조는 평시조보다 어느 한 장 이상이 길어진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③ '백성', '지방의 탐관오리', '중앙의 고위 관료' 간의 권력 관계를, '파리', '두꺼비', '백송골'의 관계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탐관오리의 부정부패, 이중성 등 당시 사회의 문제를 비판한 작품이다.

20 (나)에서는 '박 선생님'의 외양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박 선생님'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에서 '강 선생님'이 '박 선생님'과 정반대라고 하며 '강 선생님'을 묘사한 점을 통해서도 '박 선생님'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라)에서 '박 선생님'이 우리에게 일본 말을 하며 혼낸 것은, 일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위한 것이지 조선말을 잘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21 (가)의 '두꺼비'는 '파리'를 핏박하고 있다가, '백송골'이 나타나 놀라서 도망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나)~(라)의 '박 선생님'은 해방 전에는 일본을 추종하다가, 해방 후에는 미국을 추종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3) 개성을 살리는 글다듬기

소단원 평가

204~205쪽

01 ④ **02** ① **03** ① **04** · 삭제해야 할 문장: 당시 나는 동생과 한방을 써서 조금 불편했다. · 삭제해야 하는 이유: 앞의 내용과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05** 그 후로
06 ② **07** ① **08** ① **09** ④

01 이 글의 글쓴이는 골목길에서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를 보고 자신이 키웠던 병아리 '민들레'에 대한 추억을 떠올린다. 병아리를 집으로 데리고 온 일, 병아리에게 '민들레'라는 이름을 지어 준 일, 아쉽지만 병아리가 자신의 곁을 떠난 일을 떠올리며 '민들레'를 기억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병아리 '민들레'를 키운 것은 글쓴이로, 주인 역시 글쓴이이다.

② (마)에서 글쓴이는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의 주인을 가족과 함께 찾아 주었다.

③ 글쓴이가 병아리 '민들레'를 처음 떠올린 것은 골목길에서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를 보고 나서이다.

⑤ 글쓴이가 병아리에게 '민들레'라는 이름을 지어 준 것은 맞지만, 이는 글의 일부뿐이므로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02 <보기>를 제외한 다른 문단은 모두 병아리 '민들레'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기>는 병아리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다.

03 이야기의 흐름을 고려하여 문단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 (가)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를 보고 '민들레'를 떠올림.

→ (나) 한 할머니께서 나누어 준 병아리를 키우게 됨. → (라) 병아리를 집으로 데려온 날 ‘민들레’라는 이름을 지어 줌. → (다) 마당에서 지내던 ‘민들레’를 엄마 몰래 방으로 데려옴. → (마)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의 주인을 찾아 주고, 세상을 떠난 ‘민들레’를 추억함.’으로 정리할 수 있다.

04 서술형 (다)의 마지막 문장을 삭제해야 한다. 앞의 내용은 비가 오는 날이면 엄마한테 들킬 것을 걱정하면서도 ‘민들레’를 방 안으로 데리고 왔다는 내용인데, 마지막 문장은 이 내용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쳐쓰기를 할 때 불필요한 내용을 빼는 것을 ‘삭제’의 원리라고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마지막 문장을 삭제해야 하는 문장으로 썼다.	☐
마지막 문장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를 바르게 썼다.	☐

05 서술형 고쳐쓰기를 할 때에는 문단의 길이가 적절한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마) 문단은 다른 문단에 비해 길이가 길다. 또한 ‘그 후로’를 기점으로 앞의 내용은 병아리 ‘민들레’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이고, 뒤의 내용은 현재의 시간으로 돌아와 강아지를 발견한 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다. 이처럼 앞부분과 뒷부분의 시간이나 이야기의 내용이 다르므로 (마) 문단은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

06 “노란 털로 덮여 있는 병아리는 정말 매력적이었다.”라는 문장은 “난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이나 병아리를 바라보았다.”라는 문장의 이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래서’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07 고쳐쓰기는 글쓰기의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 글을 직접 쓰는 표현하기 단계에서도 고쳐쓰기는 가능하지만, 이때 무조건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말하려는 내용에 맞는 적절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08 고쳐쓰기는 일반적으로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낱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데, ‘글 → 문단 → 문장 → 낱말’의 순서로 고쳐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큰 부분부터 작은 부분으로 고쳐 나가야 글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으며 글을 다듬을 수 있다.

09 글 수준에서 글을 고쳐 쓸 때에는,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ㄴ), 글의 제목이 적절한지, 보충해야 할 내용이나 글의 흐름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ㄷ, ㄹ) 등을 살펴봐야 한다.

오답인 이유 ㄱ. 낱말 수준에서 글을 고쳐 쓸 때 살펴봐야 할 내용이다.

ㄴ. 문단 수준에서 글을 고쳐 쓸 때 살펴봐야 할 내용이다.

대단원 평가



216~221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①	05 ③
06 ③	07 ①	08 ②	09 ①	10 •표면
적 의미: 당신을 잊었다. • 내포적 의미: 당신을 잊을 수 없다.				
11 ②	12 ③	13 ⑤	14 ⑤	15 ⑤
16 ②	17 ③	18 ②	19 ②	20 ③
21 ⑤				

01 (가)와 (나)는 현대 시, (다)는 노랫말, (라)는 사설시조로 모두 서정 갈래에 속하는 문학 작품들이다. 이처럼 시 작품을 읽을 때에는 시어에 담긴 함축적 의미, 시어가 주는 이미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등을 감상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 중에서 조선 시대에 있던 사회적 계급을 알 수 있는 작품인 (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에서 특별한 시대적 상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02 (다)의 말하는 이는 ‘당신’을 그리워하며 보고 싶은 마음과는 반대로 “이젠 당신이 그림자 없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아직 ‘당신’을 잊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면서도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처럼 역시나 자신의 마음을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반어 표현이라고 한다. ①~④는 반어 표현이 사용되었고, ⑤는 역설 표현이 사용되었다.

03 (다)에서 ‘두꺼비’는 자신이 넘어진 것에 대해 허세를 부리면서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겸연쩍어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③ “건넌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섬뜩하여 풀뒀 뛰어 내달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거고”에서 ‘두꺼비’가 ‘매’를 보고 지레 겁먹어 넘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자신보다 힘 있는 대상에게는 굽실거리는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⑤ (다)에서 ‘두꺼비’는 자신보다 힘이 없는 ‘파리’를 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보다 힘이 없는 대상을 괴롭히는 행동으로,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의 부조리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04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시행은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 표현이 사용되었다.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② [A]의 1~2행, 3~4행, 5~6행은 각각 비슷한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시에서는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한다.

③ [B]에서는 자연물인 ‘강물’, ‘새들’, ‘꽃잎’을 활용하여 사랑이 끝난 절망적인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A]의 3~6행은 [C]의 11~14행에서 변용하여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는 한편, 구조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⑤ [A]에서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역설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B]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C]에서는 '보라'라는 명령형을 통해 시의 흐름을 전환하고 절망을 극복하려는 말하는 이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05 (가)의 말하는 이는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으면서도 ㉠과 같이 자신의 본심과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활용하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을 강조할 수 있다. <보기>는 ㉠과 달리 말하는 이의 본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경우, 말하는 이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오답인 이유 ①, ② <보기>와 같이 진심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보다 ㉠처럼 반어로 표현할 때, 말하는 이의 절실함이 강화되고 이별의 아픔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④ <보기>는 말하는 이의 속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었다. 말하는 이의 속마음을 미루어 짐작해야 하는 것은 ㉠이다.

⑤ ㉠과 <보기>에서 말하는 이는 모두 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 <보기> 모두 임에 대한 말하는 이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06 (나)의 말하는 이는 초등학교생인 어린아이로, 자신의 눈에 비친 그대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판단 또한 미숙하다. 그러므로 다른 인물의 심리를 정확하게 안다고 볼 수 없다.

07 (나)의 말하는 이는 중심인물인 '박 선생님'의 외양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때 '뽀뽀', '뽀뽀', '대갈선생'처럼 '박 선생님'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독자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서술자가 '박 선생님'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운율을 파악하며 읽어야 하는 갈래는 주로 시조나 현대 시와 같은 서정 갈래에 속하는 문학 작품들이다.

③ (나)에서는 중심인물인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외모와 성격을 주로 소개하고 있을 뿐, 인물 간의 갈등이나 그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은 찾아볼 수 없다.

④ (나)는 어린아이인 서술자의 눈을 통해 '박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⑤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일화에서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갈래는 전기문이다.

08 (나)는 '박 선생님'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비판하고 있고, <보기>는 '두꺼비'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풍자란 사실을 곧이곧대로 드러내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비꼬아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방법을 말한다.

오답인 이유 ① <보기>는 부정적인 인물인 지방의 탐관오리를 동물인 '두꺼비'에 비유하고 있을 뿐, 긍정적인 인물은 나타나 있지 않다. (나)에서는 부정적인 인물인 '박 선생님'과 긍정적인 인물인 '강 선생님'이

싸우는 모습을 고양이와 수캐가 마주 만나 형국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③ (나)에서는 부정적인 인물인 '박 선생님'과 긍정적인 인물인 '강 선생님'을 대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부정적인 인물인 '두꺼비'와 대조되는 '백송골'과 '파리'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는 시대 상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인 서술자 '나'의 말을 통해 당사가 해방 전후임을 알 수 있는 정도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그 시대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나와 있지 않다. <보기> 역시 지방의 탐관오리를 '두꺼비'에, 힘없는 백성을 '파리'에, 중앙의 고위 관료를 '백송골'로 상징하여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향토적'이라는 말은 '고향이나 시골의 정취가 담긴. 또는 그런 것'을 뜻하는데, (나)와 <보기> 모두 이러한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9 ㉠은 말하는 이가 자신의 입으로 '박 선생님'을 평가하고 있는 부분으로, 아직 상황 판단인 미숙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은 하지 못하고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10 **서술형** (가)의 말하는 이는 줄곧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당신'을 '잊었노라'라며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표면적 의미를 정확하게 썼다.	☐
내포적 의미를 정확하게 썼다.	☐

11 말하는 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는 글은 주로 수필에 해당한다. 시에서는 주로 말하는 이의 정서가 함축적인 의미로 형상화되므로, 시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파악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와 (나)의 시는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시이므로, 시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음미하면서 읽는 것이 좋다.

12 (가)에는 말하는 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 표현이 사용되었다. ③의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역시 속마음은 임이 떠나면 울부짖으며 임을 붙잡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슬퍼도 꼭 참고 보내드리겠다고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설의법이 사용되었다. 여기서 '그리워하느냐'는 그리워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② 표현하려는 대상과 비슷한 특성이 있는 다른 대상을 써서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인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내 마음'을 '호수'에 비유하고 있다.

④ '꽃잎'이 손길을 흔든다며 마치 '꽃잎'이 인간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즉,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⑤ '임'이 떠났는데도 '임'을 보내지 않았다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재회에 대한 확신을 보여 주고 있다.

13 (나)의 말하는 이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고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며,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랑과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나)의 제목은 '봄 길'이고, 시에서도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온다. '봄 길'은 미래, 가능성의 의미를 내포한 시어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가치를 뜻하므로, (나)의 말하는 이는 미래를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② (나)의 말하는 이는 현재 상황과 미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다.

③ (나)의 말하는 이는 길도 끝나고 사랑이 끝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길이 있고 사랑이 있다며, 현재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④ (나)의 말하는 이는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 자신이 그리는 이상적인 공간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14 (다)~(마)의 서술자는 아직 어린아이로 상황 판단이 미숙하고 사건을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서술한다. 그렇기 때문에 '박 선생님'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시류에 편승하며 개인의 이익만을 좇는 '박 선생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여 그의 잘못된 행위를 부각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15 '박 선생님'은 일제가 조선을 강점했을 때에는 일본을 찬양하였다가, 일본이 전쟁에 지고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미국을 찬양한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라는 속담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지조 없이 이편에 붙었다 저편에 붙었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박 선생님'의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비판하기에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은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나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박 선생님'이 미국을 찬양하는 것은 영향력이 커진 미국에 붙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것인데, 이것을 일이 잘못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수발 잘 할기'라는 속담은 맛있는 수박을 먹는다는 것이 딱딱한 겉만 할고 있다는 뜻으로, 사물의 속 내용은 모르고 겉만 건드리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박 선생님'이 일본이나 미국을 찬양하는 일을 일본이나 미국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은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박 선생님'은 일본이나 미국을 찬양하고 있지, 이들에 저항한 적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은 못한다'라는 속담은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하여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의 미천하거나 어렵던 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박 선생님'이 일본을 찬양할 때를 미천하거나 어려울 때라고 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미국을 찬양할 때 사정이 더 나아졌다고 볼 수도 없다.

16 조선의 해방 소식을 듣고 그렇게 일본을 찬양하던 '박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다른 일본 선생님들과 함께 기가 죽은 채

로 앉아 있다. 반면에 '강 선생님'은 평소와 다르게 들이 날뛰고 덤빌 정도로 기뻐하며 아이들에게 태극기를 만들어 나오겠다고 말한다.

17 일본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했던 것은 '박 선생님'이다. '나'는 '박 선생님'이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고 하나까 의아해할 뿐이지 충격을 먹은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말하는 이가 언제까지고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시행이다.

② 사랑이 끝나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삶의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명령형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④ 일본이 조선 사람에게 굴었던 행적들을 열거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박 선생님'의 말을 전달함으로써 '박 선생님'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18 문장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길이가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다. 자신이 쓴 글에서 문장의 길이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과정은 필요하나, 문장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 '그런데'는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거나,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쓰는 접속어이다. (나)의 '그런데'의 앞 문장은 노란 병아리가 정말 매력적이었던 내용이고, '그런데'로 시작하는 문장은 이러한 병아리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는 내용으로, 앞 문장의 결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어인 '그래서'를 써야 한다.

20 ㉠~㉣ 중, 삭제해야 하는 문장은 ㉢이다. "당시 나는 동생과 한방을 써서 조금 불편했다."라는 문장의 앞 문장은 비가 오는 날이면 '민들레'를 방에 들였다는 내용인데, 이 문장은 동생과 방을 함께 써서 불편했다는 내용이어서 앞의 내용과 이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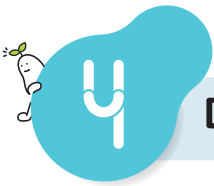
21 <보기>의 내용은 병아리의 이름인 '민들레'라는 제목을 글의 목적에 맞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병아리와 추억과 이별을 전달하고자 하는 글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짧았지만 영원히 기억할 만남'과 같은 제목이 어울린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에 동물인 병아리와 식물인 민들레가 소재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의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이 글은 병아리와 겪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을 전달하고 있을 뿐, 병아리를 잘 키우는 방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글에 반려동물을 사랑했던 글쓴이의 마음만 나타낼 뿐, 반려동물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이 드러난 부분은 없다.

④ 이 글에 길 잃은 강아지를 도와준 사건은 드러나지만, 이는 글쓴이가 유년 시절에 키웠던 병아리와 추억을 떠올리게 된 계기일 뿐이다.



4 더 쉽게 더 정확하게

(1) 다양한 설명 방법

확인 문제

• 229~231쪽

229쪽 1 ⑤ 2 ⑤ 3 ①
231쪽 4 바실루스, 아미노산 5 ② 6 ④

1 글의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의 처음 부분은 (가)와 (나)인데, 글쓴이는 (가)와 (나)에서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식품을 만들어 내는 발효란 무엇일까? 그리고 발효 식품은 왜 건강에 좋을까?'와 같이 읽는 이에게 질문을 던지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완자쌤의 풀이

이 글은 처음 부분에서 질문을 활용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전개 방식은 읽는 이가 글에 흥미를 느끼고 화제에 집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2 (라)에서 김치는 우리가 채소의 영양분을 계절에 상관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발효 과정에서 더해진 좋은 성분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런데 (나)에서 빵이 달콤하고 고소한 향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김치가 달콤하고 고소한 향으로 입맛을 자극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인 이유 ①, ③ (바)에서 김치는 젖산균과 젖산에 의해 우리 몸 안에서 소화를 촉진하고 노폐물이 잘 배설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②, ④ (바)에서 젖산균과 젖산이 풍부한 김치는 유해균이 번식하거나 발암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변비 및 대장암, 당뇨병 등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3 (다)는 발효란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과정이라며 그 개념을 제시하고, 발효와 부패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들어 발효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의 소재목으로는 '발효의 개념과 특성'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② (나)에서 발효 식품은 맛이 좋을 뿐 아니라 우리 몸에도 좋다고 하였고, (다)에서도 발효는 우리 몸에 유용한 물질을 만든다고 하였다. 발효의 안정성에 대한 다른 주장이나 다름이 될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③ (다)에서는 발효라는 화학 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발효 식품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④ 미생물의 작용으로 발효가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부패 역시 미생물의 작용으로 일어나므로 '미생물이 발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발효와 효모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아니라 발효와 부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4 **서술형** (아)에서는 간장이 감칠맛을 내는 까닭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바실루스라는 젖산균의 일종인 균이 콩에 들어 있는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만들어 내는데, 이 아미노산이 소금물에 녹아들어 감칠맛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바실루스'와 '아미노산'을 차례대로 썼다.	☐

5 (아)에서는 간장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메주가 소금물 속에서 발효될 때, 아미노산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차)에서는 된장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고 하였으므로, 간장과 된장 모두에 아미노산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된장이 간장과 달리 아미노산 함량이 낮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④ (차)의 된장은 '간 기능을 높이고, 피부병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자)의 '간장을 만들고 나면 메주가 남는다. 이 메주를 건져 내어 잘게 으깨고, 여기에 소금을 넣어서 잘 섞는다. 이를 장독에 넣어 1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맛있는 된장이 완성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차)의 '된장은 '암을 이기는 한국인의 음식'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이는 메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항암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6 글쓴이는 이 글의 마지막 문단인 (카)에서 발효 식품의 효용 가치를 강조하고, '앞으로 전통 발효 식품을 발전시킬 방법도 생각해 보면서 말이다.'와 같이 읽는 이에게 전통 발효 식품을 발전시킬 방법을 생각해 보기를 제안하고 있다.



완자쌤의 풀이

설명하는 글의 '끝 부분'에서는 보통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과제나 읽는 이에게 당부할 내용을 제시해.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도 글쓴이는 앞서 설명한 우리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요약하고, 읽는 이에게 앞으로 전통 발효 식품을 발전시킬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어.

소단원 평가

240~243쪽

- 01 ① 02 ⑤ 03 ㉠ - ㉢, ㉤ - ㉥, ㉦ - ㉧
04 ③ 05 ② 06 ① 07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함. 간 기능을 높임. 피부병을 예방함. 성인병을 예방함. 항암 효과가 뛰어나.
08 ① 09 ⑤ 10 ① 11 ④
12 ④ 13 ③ 14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든다.
15 ④ 16 ①

01 이 글은 (가)와 (나)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발효 식품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다)에서 발효의 개념을, (라)~(마)에서는 김치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발효 식품의 뛰어난 특성을 설명하는 글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글쓰이는 발효 식품이 몸에도 좋고 맛도 좋다고 하고 있으므로 발효 식품을 조금만 먹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③ 이 글에서는 발효 식품의 여러 가지 예가 등장하나, 이러한 발효 식품을 만든 글쓰이의 경험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글에서 발효 식품이 세계 장수 마을의 장수 비결이라는 내용은 있지만, 이를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이 글은 발효 식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발효 식품에 대해 잘 못 알려져 있는 내용을 바로잡고 있지는 않다.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

- 정보 전달을 위한 글: 어떤 사실이나 사물, 현상 또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원리, 법칙 등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 쓴 글. 설명문, 기사문, 안내문 등
- 설득을 위한 글: 어떤 사실이나 현상, 가치 등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쓴 글. 논설문, 비평문, 건의문, 광고문 등
- 사회적 상호 작용과 자기 성찰을 위한 글: 식사문, 서간문, 수필, 감상문, 회고문 등
- 학습을 위한 글: 요약문, 보고서, 논문, 논설문 등

참고 자료

02 (다)에서 발효된 물질은 사람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부패한 물질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젖산균은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증식되는 것으로,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김치에 젖산균이 증식하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라)에서 발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전통 음식으로 김치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음식으로는 김치 외에도 간장과 된장이 있다.

② (나)에서 다양한 발효 식품이 특유의 맛과 향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다양한 발효 식품의 종류로 요구르트, 하몬, 된장, 빵, 치즈 등을 언급하고 있다.

④ (라)에서 김치는 채소를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먹기 위해 조상들이 생각해 낸 음식이라고 하였다.

03 **서술형** (다)의 ㉠은 발효의 개념을 밝혀 발효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의'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은 발효와 부패를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혀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교'의 방법이, ㉢은 발효와 부패의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고 있으므로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완자쌤의 풀이

한 문단 안에서도 다양한 설명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대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해 봐.

04 (마)에서는 김치 발효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젖산균을 설명하기 위해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채소를 묶은 농도의 소금에 절이면 효소 작용이 일어나면서 당분과 아미노산이 생기고, 이를 먹이로 삼아 여러 미생물이 성장하면서 발효가 시작된다고 하였다. 즉, 미생물은 당분과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당분과 아미노산을 먹이로 하여 생성되는 것이다.

05 (마)에서는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요약하고, '앞으로 전통 발효 식품을 발전시킬 방법도 생각해 보면서 말이다.'와 같이 읽는 이에게 전통 발효 식품을 발전시키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 발효 식품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전통 양념인 간장을 만드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라)에서 전통 양념인 된장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간장을 만들고 난 메주로 된장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젖산균의 일종인 바실루스가 콩에 들어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든 아미노산이 소금물에 녹아들어 감칠맛을 더하기 때문에, 간장을 넣은 음식이 맛있어지는 것이다.

⑤ 김치에 들어 있는 젖산균이 만들어 내는 젖산이 우리 몸에 여러 이로운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06 설명 방법은 문장이나 문단뿐 아니라 글 전체 수준에서도 사용되는데, (가)~(마)는 '김치', '간장', '된장'을 예로 들어 이 글의 주제인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마)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인 '예시'이다.

07 **서술형** '된장'의 우수성은 (마)에 제시되어 있다. (마)에서 아미노산이 적은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에게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된장'은 꼭 필요한 음식이라고 하였다. 또한 된장에는 항암 물질도 들어 있는 데다, 다양한 병을 예방해 준다고 된장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마)에서 언급한 내용을 찾아 썼다.	☐
두 가지 이상을 찾아 썼다.	☐

08 (바)에서 발효 식품은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에서는 간장의 발효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소금물에 녹아들어 감칠맛을 더하고 영양소를 공급한다고 하였으며, (마)에서는 된장의 발효 과정에서 항암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오답인 이유 ㉢. (바)에서 발효 식품은 그 재료와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독특한 맛과 향을 지녀서 우리 밥상을 풍성하게 해 준다고 하였다. ㉣. (바)에서 우리의 전통 음식을 중심으로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알아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발효 식품이 우리나라에만 전해지는 전통 음식은 아님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글의 서두에는 중국 신장의 요구르트, 스페인 랑하론의 하몬, 빵, 치즈 등 다른 나라의 발효 식품도 예로 들고 있다.

ㅁ. (라)에서 된장을 만들려면 간장을 만들고 남은 메주를 잘게 으깨고, 여기에 소금을 넣어 1개월 이상 숙성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즉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09 이 글의 처음 부분인 (가)에서는 요구르트, 하몬, 빵, 치즈 등을 예로 들어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외국의 발효 식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전통 발효 식품과 비교·대조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발효 식품이 더 뛰어나다는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마)에서 글쓴이는 발효 식품이 영양가가 풍부하다는 설명과 더불어 '오늘 저녁밥으로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와 아삭아삭한 김치를 먹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② 이 글은 우리 발효 식품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글을 읽으면서 얻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③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우리 발효 식품은 옛부터 전해 내려온 우수한 식품이다. 그러므로 우리 발효 식품은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임을 기억해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④ (마)에서 글쓴이는 읽는 이에게 전통 발효 식품을 발전시킬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10 (가)에서 언급한 발효의 개념과 발효 식품의 우수성은 (가)의 중심 내용이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가운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이다. (가)는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발효 식품과 그 예'를 설명하고 있다.

11 (다)~(라)에서는 '간장'과 '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열하고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콩을 푹 삶아서 찌는 다음, 메주(덩어리)로 만든다. 이를 따뜻한 곳에 두어 발효하고 소금물에 담가 우려낸다. 그 국물을 꺼내어 달이면 간장이 완성된다. 그러므로 간장이 만들어지는 때는 ④이다.

12 ㉠은 젖산이 약한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원인)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김치가 잘 썩지 않는 것(결과)이라고 하여 '인과'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는 '태평양 지역의 해수 온도의 상승'을 원인으로 '예년에 비해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결과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과'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오답인 이유 ① 열정의 개념을 밝히며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의'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② 소설을 '길이'라는 기준에 따라 장편 소설, 중편 소설, 단편 소설, 콩트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구분'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③ 희곡과 시나리오를 견주어 서로 간에 공간적 제약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⑤ 새우 볶음밥을 만드는 방법을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으므로 '과정'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13 (다)는 국악기를 '연주 방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작은 향목들로 나누는 '구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국악기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들을 비교하거나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는 발효의 개념을 설명하고, 발효의 특성을 부패와 '비교·대조'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나)는 발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전통 음식의 사례로 김치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④ (라)는 국악기에 속하는 작은 향목들을 '연주 방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 설명하고 있는 '분류'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⑤ (마)는 가야금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몸통, 줄, 안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14 서술형 (가)에서 발효와 부패는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꾸어 놓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발효는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 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부패는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서 함부로 먹을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든다.'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발효'와 대응되는 차이점을 정확하게 썼다.	☐
'부패'가 어떤 작용인지를 중심으로 썼다.	☐

15 구분은 전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세대별로 즐겨 듣는 노래'를 '나이'라는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 구분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세대별로 즐겨 듣는 노래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은 '예시'의 방법이다.

② 세대별로 즐겨 듣는 노래가 다른 까닭의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방법은 '인과'의 방법이다.

③ 세대별로 즐겨 듣는 노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비교'와 '대조'의 방법이다.

⑤ 세대별로 즐겨 듣는 노래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은 '과정'의 방법이다.

16 '인과'란 원인과 결과에 따른 설명 방법이다. 하나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품사의 종류는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구분'이나 '분류'의 방법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② 인간의 신체 구조를 머리, 몸통, 팔, 다리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대상을 몇 개의 부분이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자연 파괴 등을 들 수 있으므로,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다양한 전통 의상으로 우리나라의 한복, 일본의 기모노, 베트남의 아오자이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⑤ 한국과 중국 음식의 조리법의 차이, 먹는 방법의 차이 등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는 '대조'를 사용할 수 있다.

(2) 설명하는 글 쓰기

소단원 평가

260~261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② 05 ④
06 ① 07 ⑤ 08 평가하고 고쳐쓰기 09 ④

01 이 만화는 줄다리기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줄다리기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며 설명하는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글을 쓰기 전 글의 주제와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앞으로 쓰고자 하는 글의 방향을 세우는 과정인 ‘계획하기’ 단계이다.

오답인 이유 ① 설명할 내용에 적절한 설명 방식과 자료 활용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이다.

③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이다.

④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설명하는 글의 구조에 맞게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이다.

⑤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게 읽는 이가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과정은 ‘표현하기’ 단계이다.

02 제시된 만화와 관련 있는 설명하는 글 쓰기의 단계는 글의 주제,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등을 떠올려 보는 ‘계획하기’ 단계이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설명 방법을 계획하는 과정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03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설명할 대상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 자료들이 주제와 연관 있는지, 신뢰성을 갖춘 자료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내용인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

오답인 이유 ①, ② 설명하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는 출처가 정확해야 하며,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

③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인지 검토해야 한다.

④ 설명하는 글은 읽는 이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료를 수집할 때에도 예상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인지 점검해야 한다.

04 (가)와 (나)의 자료를 연관 지어 볼 때, 우리 민속놀이인 ‘줄다리기’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쓰려고 수집한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①의 의미를 사용해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③ (가)는 국어사전을 사용하여 줄다리기의 뜻이 무엇인지 찾은 자료이므로, ‘줄다리기의 뜻’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쓸 때 대상의 본질, 개념, 뜻을 밝히며 설명하는 방법인 ‘정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줄다리기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놀이여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줄다리기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⑤ (나)는 줄다리가 매우 가치 있는 놀이이므로, 이를 잘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인과’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05 ‘처음(㉠)’ – ‘가운데(㉡)’ – ‘끝(㉢)’으로 이루어진 설명하는 글의 구조에서, ㉡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다. 읽는 이에게 설명 대상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오답인 이유 ① 설명하는 글의 개요를 짜는 것은 설명하는 글의 구조인 ‘처음 – 가운데 – 끝’에 맞게 흐름을 잡아 글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기 위해서이다.

② ㉠는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으로, 설명할 대상을 제시하고, 글을 쓴 동기를 밝히며, 읽는 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단계이다.

③ ㉡는 설명하는 글의 ‘가운데’ 부분으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설명하는 단계이다.

⑤ ㉢는 설명하는 글의 ‘끝’ 부분으로, 앞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글을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당부하는 단계이다.

06 ㉠은 줄다리가 어떻게 하여 생겨난 것인지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분석(대상 전체를 이루는 부분을, 구성 요소로 쪼개어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인과(일의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며 설명하는 방식)’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② ㉡은 줄다리기의 편 구성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지역 간의 편 구성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비교·대조’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는 줄다리기의 규칙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줄다리기의 규칙을 순서대로 늘어놓아 설명하는 ‘열거’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은 줄다리가 지닌 가치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줄다리를 함으로써(원인)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점(결과)을 설명하는 ‘인과’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은 줄다리를 전승하려는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각종 단계에서 줄다리를 전승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7 ‘표현하기’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를 쓰는 단계이다.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 앞서 작성한 개요가 주제나 목적 등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개요를 각각 수정하여 맥락에 맞게 글을 써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계획하기’에서 설정한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게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②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설명하는 글의 구조인 ‘처음 – 가운데 – 끝’에 따라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추어 써야 한다.

③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설명하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써야 한다.

④ 설명하는 글의 목적은 읽는 이에게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읽는 이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한다.

08  선생님이 '민재'에게 조언하고 있는 내용은 설명하는 글쓰기의 단계 중 '평가하고 고쳐쓰기' 단계이다. '평가하고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자기가 쓴 글을 점검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잘못된 부분은 고쳐 쓰고, 부족한 내용은 보충하도록 한다.

09 설명하는 글의 초고를 검토할 때에는 계획한 내용과 개요를 참고하여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는지, 알맞은 설명 방법을 활용했는지, 글의 구조가 짜임새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설명하는 글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관적인 느낌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쓰는 글이므로 '대상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뚜렷하게 드러냈는가?'는 평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

초고 쓰기

- 작문 상황이나 목적, 예상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어휘와 문장을 선택하고, 올바른 어법을 사용하여 표현함.
- 어휘 선택 시 전달하려는 뜻, 예상 독자, 대상에 대한 태도, 글의 유형에 따른 관심,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고려하여 표현함.
- 작문 상황이나 조건, 목적, 예상 독자의 유형이나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문체를 형성하여 표현함.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문의 맥락과 필요성을 살핀 후 보조적 성격의 적절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표현함.

참고 자료

대단원 평가



270~275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③	05 ③
06 ②	07 젖산균	08 ⑤	09 ④	10 ⑤
11 ②	12 젖산은 약한 산성 물질이어서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13 ㉠-㉡-㉢-㉣-㉤	14 ③	15 ①		
16 ②	17 ③	18 ③	19 인과	20 ①
21 ③	22 ④	23 ②	24 ①	

01 이 글은 발효의 개념과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글이다. 이와 같은 글의 종류는 설명문으로, 어떤 사실이나 사물, 현상 또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원리 등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 쓴 글이다.

오답인 이유 ① 어떤 사실이나 현상, 가치 등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쓴 글은 논설문이다.

②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근황이나 용건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글은 서간문이다.

③ 어떤 문제에 대해 개인이나 기관에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거나 제안하고자 쓰는 글은 건의문이다.

④ 문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대상의 내용과 구성 등을 분석하여 의견을 드러내는 글은 비평문이다.

02 이 글은 김치, 간장, 된장을 사례로 들어 우리 전통 발효 식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중심으로 이들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이 글을 발효 식품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썼다고 볼 수 있다.

03 이 글의 '가운데' 부분에서 (나)는 발효의 개념을 정의하고, 부패와의 비교·대조를 통해 발효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후에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 (다)와 (라)는 김치의 우수성에 대해, (마)는 간장의 우수성에 대해, (바)는 된장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는 문단이다.

04 (사)는 이 글의 마지막 문단으로, '발효 식품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영양가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재료와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독특한 맛과 향을 지녀서 우리 밥상을 풍성하게 해 준다.'라고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요약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전통 발효 식품을 발전시킬 방법도 생각해 보면서 말이다.'라고 하며 우리 전통 발효 식품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05 (사)의 '발효 식품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영양가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로 미루어 보아, 발효 식품은 발효가 되고 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이지, 발효가 되기 전까지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06 (가)에서는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식품을 만들어 내는 발효란 무엇일까? 그리고 발효 식품은 왜 건강에 좋을까?'라는 질문을 활용하고 있다. (다)에서는 '그렇다면, 발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전통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활용하고 있다.



완자뽕의 풀이

글쓴이가 읽는 이에게 질문을 하면서 글을 전개하면, 읽는 이의 지루함을 덜고 화제에 좀 더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어. 또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글쓴이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므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게 할 수도 있지.

07  (라)에서 '젖산균과 젖산이 풍부한 김치는 변비 및 대장암, 당뇨병 등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젖산균이나 젖산'이다. (마)에서는 '메주가 소금물 속에서 발효될 때, 젖산균의 일종인 바실루스가 콩에 들어 있는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으로 바꾸어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산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아미노산은 소금물에 녹아들어 감칠맛을 더하고 영양소를 공급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㉑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젖산균의 일종인 바실루스’이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㉑과 ㉒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젖산균’이다.

08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써서 설명하는 방식이다. ㉑에는 이러한 설명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인 이유** ① ㉑은 발효의 뜻을 곰팡이나 효모와 같은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② ㉒은 발효와 부패의 공통점이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라며, 발효와 부패를 비교하고 있다.
 ③ ㉓은 발효와 부패의 차이점이 발효는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고, 부패는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이라며, 발효와 부패를 대조하고 있다.
 ④ ㉔은 발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전통 음식의 구체적인 예로 김치를 들고 있다.

완자쌤의 풀이

‘인용’은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금은 우리의 건강이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와 같이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써서 설명하는 방식을 말해.

09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예상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알기 쉽게 풀어 써야 한다. 그래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상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 글의 난이도를 조절해야 하므로 고차원적인 지식을 실어 글의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10 <보기>의 ㉑은 ‘비행기’를 엔진과 플랩, 에일러론, 스포일러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의 ㉒은 ‘폼사’를 ‘형태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구분’의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마) 중, (마)는 ‘가야금’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몸통, 줄, 안쪽’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㉑과 같은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라)는 ‘국악기’라는 큰 항목을 ‘연주 방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작은 항목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구분’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11 (다)는 간장을 만드는 방법을 ‘삶은 콩을 찌는다. → 메주를 만든다. → 따뜻한 곳에서 발효된 메주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둔다. →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우려낸 후 국물만 달인다.’와 같이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를 읽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간장을 만드는 방법과 그 순서이다.

12 **비율형** ㉑의 ‘우리가 채소의 영양분을 계절에 상관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능한 까닭은 김치가 있는 젖산이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에서 ‘인과’의 방식이 활용된 문장의 내용을 썼다.	☐
‘~기 때문이다.’의 형태로 썼다.	☐

완자쌤의 풀이

주어진 조건은 사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는 셈이야. (나)에서 ‘인과’의 방식이 활용된 문장은 ‘젖산은 약한 산성 물질이어서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한다.’야. 이 내용이 곧 채소의 영양분을 계절에 상관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까닭이지.

13 설명문을 쓰는 과정은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내용 표현하기 → 평가하고 고쳐쓰기’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㉑~㉔을 이러한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㉑ - ㉑ - ㉒ - ㉓ - ㉔이 된다.

14 <보기>는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한 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이와 관련 있는 설명하는 글쓰기의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이다.

완자쌤의 풀이

설명하는 글쓰기 과정 중,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거나 전문가와의 면담 등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및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의 자료를 수집해야 해. 자료를 수집한 후에는 자료를 중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고, 더 필요한 자료가 없는지 점검해야 해.

15 설명하는 글을 쓰려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때 수집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여야 하며(㉑),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는 정보여야 하고(㉒), 관련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㉓).

오답인 이유 ㉒.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활용한 정보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혀, 다른 사람이 쉽게 찾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㉓.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는 주제와 관련 있는 정보여야 한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라도 주제와 관련이 없다면 글에 활용할 수 없다.

16 (가)는 줄다리기가 매우 가치 있는 놀이이므로 이를 잘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내용을 ‘열거’와 ‘인과’의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는 '경남 도민 신문'에 실려 있는 정보이다.
 ③ (가)는 '줄다리기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놀이여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내용이므로 줄다리를 잘 보존하고 계승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나)는 줄다리에 사용된 줄의 구조를 머리, 몸줄, 겹줄 부분으로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⑤ (나)의 그림은 줄의 머리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글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보여 주면 줄의 구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17 줄다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떻게 해야 줄다리에 서 이기는 것인지 등에 대한 규칙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례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줄다리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은 3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줄다리가 민속놀이로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은 1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줄다리의 편 구성 방식을 육지 지방과 섬 지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내용은 2문단에 해당한다.
 ⑤ 줄다리가 주로 남쪽 지역에서 행해지다가 점차 북쪽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알려 주는 내용은 1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하지만'은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잇는 접속어이다. 그러나 ㉠의 앞에서는 줄다리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벼농사 지역에서 농경 행사로 시작되었다고 하였고, ㉡의 뒤에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줄다리는 농사의 풍년과 복을 기원하는 민속 행사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 '따라서'는 적절하게 쓰인 접속어이다.

오답인 이유 ① '이남'은 '어떤 기준이 되는 지점으로부터 그 남쪽'의 의미이다. 따라서 '남쪽'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남쪽'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1문단은 줄다리의 뜻과 유래에 대한 설명인데, ㉠은 문단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문단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줄다리를 전승하려는 노력을 설명하기 전에 줄다리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⑤ 무엇을 전승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빠져 있으므로 ㉡에 '줄다리를'을 첨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완자쌤의 풀이

설명하는 글 쓰기의 마지막 단계인 '고쳐쓰기'는 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다시 쓰는 과정이야. ①~⑤에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며 올바르게 고친 내용인지 파악해야 해.

19 **서술형** ㉡는 '줄다리는 암줄이 이어야 그해에 풍년이 든다고 하여'를 원인으로, '대개 여자 편이 이기도록 남자 편이 양보하는 것이 목계로 되어 있다.'를 결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인과'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20 <보기>에는 미세 먼지의 종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구분'의 설명 방법도 쓰였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인 이유 ② '미세 먼지란 여러 가지 복합 성분을 가지고 대기 중에 떠다니는 2.5마이크로미터에서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말한다.'에서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여 미세 먼지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③ '미세 먼지는 주로 연소 입자인 탄소와 유기탄화수소, 질산염, 황사염과 유해 금속 성분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에서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미세 먼지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④ '예를 들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외출 후에 코와 손을 꼼꼼히 잘 씻거나 공기 청정기를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에서 미세 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⑤ '이러한 해로운 물질이 호흡기와 폐는 물론 혈관까지 파고들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킨다.'를 통해 미세 먼지가 원인이 되어 신체에 미치는 결과를 '인과'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21 이 글에서 '나와 같은 궁금증(귀지를 제거해야 하는지)을 가진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라고 한 부분으로 보아, 이 글의 예상 독자는 '친구들'이다.

22 4문단의 '귀지는 눅눅한 귀지와 마른 귀지로 나뉘는데'를 통해 귀지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귀지의 종류를 '비교'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귀지란 무엇일까? 이는 귓구멍 속에 낀 때를 말한다.'를 통해 '귀지의 뜻'을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나뉘는데'를 통해 '귀의 구조'를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귀지는 우리 귀를 보호하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 외이도에 있는 작은 털들과 함께 귀지는 귓속으로 들어오려는 이물질들을 막아 준다.'를 통해 '귀지의 역할'을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귀지를 파게 되면 세균이 쉽게 침범하고, 만성 외이도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를 통해 '귀지를 파면 안 되는 까닭'을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설명하는 글을 고쳐 쓸 때에는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활용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 글에서 '정의'의 방법을 활용하여 귀지의 뜻을 설명한 것은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외이', '중이', '내이'는 예상 독자에게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으므로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각각 '바깥귀', '속귀'로 바꿀 수 있다.
 ③ 이 글에서 설명하는 정보는 주관적인 느낌을 배제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이다.
 ④ 이 글은 '끝'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므로 설명한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⑤ 이 글에는 사용된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글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4 ㉠은 귀의 구조와 귀지가 만들어지는 곳, 외이의 구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러므로 귀의 구조를 그린 그림을 활용할 수 있다.



01 ⑤	02 ③	03 ③	04 보라	05 ③
06 ⑤	07 두꺼비	08 ②	09 ①	10 ⑤
11 ③	12 ④	13 ③	14 타이르기 → 조르기	
15 ①	16 ⑤	17 ⑤	18 ⑤	19 ④
20 예시	21 ④	22 ①	23 내용 조직하기	
24 ③	25 ⑤			

01 (가)와 (나)는 둘 다 자유시이긴 하지만, (가)의 경우는 ‘먼 훗날 ∨ 당신이 ∨ 찾으시면 / 그때에 ∨ 내 말이 ∨ 잊었노라’와 같이 3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음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면 운율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는 말하는 이인 ‘나(내)’가 나타나 있지만, (나)의 말하는 이는 시 속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는 행과 연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4연 8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는 연의 구분은 없지만 행이 구분되어 14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③ (가)의 말하는 이는 미래에 ‘당신’이 ‘나’를 찾아와 ‘나’를 나무란다면 ‘잊었노라’라고 대답하겠다고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단정적 표현으로 삶의 이치와 진리를 전달하고 있을 뿐, 미래를 가정하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나) 둘 다 뚜렷한 색감을 나타내는 시어는 나타나 있지 않다.

02 (가)는 3음보 율격을 바탕으로 ‘……면 …… 잊었노라’와 같이 구조가 유사한 문장과, ‘잊었노라’라는 시어가 반복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모든 행이 전부 10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를 통해서도 운율을 느낄 수 있다. 음성 상징어는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03 (가)는 미래에 ‘당신’을 만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이는 말하는 이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이를 말하는 이가 ‘당신’과 재회할 것을 확신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보기>의 말하는 이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을 뿐, ‘당신’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지는 않다.

04 **서술형** 이 시의 10행 ‘보라’ 앞에서는 자연물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보라’ 뒤에서는 이를 극복한 사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보라’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

05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반어라고 한다. (가)는 반어 표현을 사용하여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는 말하는 이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에서 ‘잊었노라’는 사실은 당신을 잊을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② ㉠과 ㉡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정하여 표현한 것이다.

④ ㉢은 서로 모순되는 표현을 통해 진실을 나타내는 역설의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⑤ ㉢은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행이다.

06 이 글의 서술자가 상황 판단이 미숙한 어린아이인 것은 맞지만, 작가가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내세운 이유는 서술자인 ‘나’가 아니라 ‘박 선생님’을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작품 속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인 ‘박 선생님’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② 이 글에서는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외모를 묘사함으로써 ‘박 선생님’의 부정적인 성격과 ‘강 선생님’의 긍정적인 성격을 대조하고 있다.

③ 이 글은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이전부터 해방된 이후까지 시대적 변화를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안에서 태도가 변화하는 인물을 비판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④ 이 글은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행동을 대조함으로써 ‘박 선생님’을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07 **서술형** 이 글의 ‘박 선생님’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강한 쪽에 붙어서 이익을 얻으려는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다. <보기>의 ‘두꺼비’는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앉아 있다가, ‘백송골’이 나타나자 깜짝 놀라 도망치다가 넘어진다. 이는 힘없는 백성은 괴롭히면서 고위 관료에게는 쏘박도 못하는 탐관오리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박 선생님’과 <보기>의 ‘두꺼비’는 모두 풍자의 대상으로, 힘 있는 자에게 굴복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08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박 선생님’은 ‘강 선생님’과 반대로 웅솔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인데다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마음이 넓고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은 ‘박 선생님’이 아니라 ‘강 선생님’이다.

09 (다)에서 ‘나’가 ‘박 선생님’에게 여러 번 혼이 난 이유가 일본 말이 아닌 조선말을 썼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박 선생님’이 친구와 싸우는 ‘나’를 혼낸 이유가 친구와 싸워서가 아니라 조선말을 쓰면서 싸웠기 때문이라는 점은 ‘박 선생님’의 부정적인 면모를 더욱 강조한다.

오답인 이유 ② ‘나’가 일본 왕을 욕하고 다녔는지, 그중에서도 ‘박 선생님’ 앞에서 욕 했는지는 이 글만으로는 알 수 없다.

③ ‘나’가 ‘박 선생님’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강 선생님’은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나’가 ‘강 선생님’을 좋아하고 따랐는지는 알 수 없다.

④ ‘나’가 ‘강 선생님’과 조선말로 대화를 자주 나누긴 했지만, 이는 ‘강 선생님’ 나름대로 일본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박 선생님’은 조선말을 쓰는 것 자체를 두고 혼을 냈지, ‘나’가 ‘강 선생님’과 조선말로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은 아니다.

⑤ ‘나’는 ‘박 선생님’의 외모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박 선생님’을 놀리고 있지는 않다.

10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은 외모와 성격, 태도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박 선생님’의 부정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 주어, 읽는 이가 ‘박 선생님’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오답인 이유 ① 과장된 행동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사람은 ‘박 선생님’이다.

② ‘강 선생님’은 순하여 사나움이 든 데가 없고, 눈은 더 순하고, 허허 웃기를 잘하고, 별로 성을 내는 일이 없고, 아무하고나 장난을 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강 선생님’의 어수룩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작가의 조롱을 받는 인물은 ‘강 선생님’이 아닌 ‘박 선생님’이다.

③ ‘박 선생님’만 해방 전후 강한 쪽에 붙어서 이익을 취하였을 뿐, ‘강 선생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④ ‘강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서술되고는 있지만,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11 ‘고쳐쓰기’ 단계는 글을 모두 쓰고 난 후에 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반드시 마지막 단계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쳐쓰기는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고쳐쓰기란 자신이 쓴 글을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다시 쓰는 일이다.

② 고쳐쓰기는 일반적으로 내용을 덧붙이는 ‘추가’, 특정한 내용을 빼는 ‘삭제’, 그 위치에서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대치’, 앞뒤 순서를 바꾸거나 몇 부분을 하나로 줄이거나 늘리면서 내용을 조정하는 ‘재구성’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④ 고쳐쓰기는 주제에 맞지 않는 문단을 삭제하거나, 문단 순서를 재구성하거나, 어색한 낱말을 다른 낱말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낱말 수준에서 고쳐쓰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고쳐쓰기의 목적은 고쳐 쓰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글의 주제나 글을 쓴 목적에 맞게 글을 다듬고, 읽는 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는 것이다.

12 (마)의 내용 중, ‘그 후로’를 기점으로 앞부분은 ‘민들레’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이고, 뒷부분은 현재의 시간으로 돌아와 강아지를 발견한 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다. 그러므로 (마)를 두 문단으로 나눈다면 ‘그 후로’를 기점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13 이 글은 글쓴이의 의미 있는 경험을 담은 수필이다. 고쳐쓰기는 글의 주제나 글을 쓴 목적에 맞게 글을 다듬어서 읽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을 고쳐 쓰면 자신의 의미 있는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에 맞는 글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4 **서술형** ‘타이르다(타이르기)’는 ‘잘 깨닫도록 일의 이치를 밝혀 말해 주다.’라는 뜻으로, 어린아이인 글쓴이가 엄마에게 떼를 쓰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끈덕지게 무엇을 자꾸 요구하다.’의 뜻인 ‘조르다(조르기)’로 고쳐 써야 어울린다.

15 ‘체하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거짓으로 그럴 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말로,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은 체하다’, ‘-는 체하다’와 같은 구성으로 쓰인다.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모른 체하고’로 써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② ‘그런데’는 화제의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어이다. 여기에서는 접속어의 앞뒤의 내용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으므로 ‘그래서’가 적절하다.

③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글쓴이는 비가 오는 날이면 엄마 몰래 민들레를 방안에 데리고 온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데리고 왔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전혀’는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어울리는 부사어이므로 ‘전혀 보이지 않았고’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벌어져 난 틈의 사이’를 뜻하는 낱말은 ‘틈새’가 아니라 ‘틈새’이다.

16 ㉞는 문장이 너무 길어서 문장 전체의 뜻을 이해하며 읽기에 불편하다. 따라서 ‘우리가 “민들레!” 하고 부르면 민들레는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우리 곁을 맴돌면서 빼악빼악 노래를 불렀다. 그런 민들레의 모습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정도로 읽기 쉽게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17 이 글은 발효 식품 중 하나인 ‘김치’를 예로 들어 발효 원리를 보여 주고 있다. 또 발효 식품인 ‘간장’을 만드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으며, 예시, 정의, 비교·대조 등 다양한 설명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글의 처음 부분에서 질문을 활용하여, 읽는 이가 흥미를 느끼고 화제에 집중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흥미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읽는 이의 관심을 끌고 있지는 않다.

18 이 글에 우리나라 발효 식품의 특성은 제시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의 발효 식품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바)에서 발효 식품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영양가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재료와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독특한 맛과 향을 지닌다며 그 효용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② (가)에서 발효와 부패는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꾸어 놓는 공통점이 있으며, 발효는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고 부패는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드는 차이점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③ (마)에서 메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향암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된장은 향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김치가 발효할 때 생기는 젖산은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하기 때문에 김치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19 (라)에서 “메주를 따뜻한 곳에 두어 발효하고 소금물에 담가 우려낸다. 그 물을 떠내어 달이면 간장이 완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에서 “된장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아미노산이 적은 쌀밥을 주로 먹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식품”

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㉔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필수 아미노산’이다.

20 **서술형** 이 글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의 전통 식품인 ‘김치, 간장, 된장’을 예로 들고 있다. 따라서 (나)~(마)에서 사용한 설명 방법은 ‘예시’이다.

21 ‘발효란 곰팡이나 …… 과정을 말한다.’에서 ‘정의’, ‘미생물이 유기물에 …… 부패와 비슷하다.’에서 ‘비교’, ‘하지만 발효는 …… 차이가 있다.’에서 ‘대조’의 설명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㉔는 ‘정의’, ㉕는 ‘비교’, ㉖는 ‘대조’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오답인 이유 ㉔는 ‘예시’, ㉕는 ‘인과’에 대한 설명이다.

22 ‘분류’는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몇 개의 부분이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㉔는 ‘분석’, ㉕는 ‘분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구분’은 전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완자쌤의 풀이

㉔는 ‘가아금’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몸통, 줄, 안쪽’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 이처럼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구조를 살피는 설명 방법은 ‘분석’이야. ㉕는 ‘국악기’에 속하는 작은 항목들을 ‘연주 방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 설명하고 있어. 이처럼 작은 것을 큰 단위로 묶는 설명 방법은 ‘분류’야.

23 **서술형** 설명하는 글 쓰기의 과정은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하기 - 평가하고 고쳐 쓰기’로 전개된다. 수집한 자료로 설명하는 글의 구조에 맞게 개요를 작성하고 내용에 적절한 설명 방법을 계획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24 주장을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장을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라는 질문은 설명하는 글을 쓴 후 이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25 자료로 제시된 신문 기사는 줄다리기가 매우 가치 있는 놀이이므로 이를 잘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줄다리기가 지닌 가치’를 설명하는 부분에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말고사 2회



282~287쪽

01 ①	02 ②	03 ④	04 ⑤	05 ①
06 (가), 읽는 이의 웃음을 유발한다. / ‘박 선생님’의 부정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부각한다. / ‘박 선생님’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등	07 ①	08 ①		
09 ⑤	10 ①	11 ⑤	12 ⑤	13 ④
14 과자 회사가 어쩌나 고맙던지.	15 ④	16 ②		
17 ④	18 ⑤	19 ③	20 ④	21 ②
22 ⑤	23 ‘2-나’. 중국의 줄다리기 규칙. 우리 전통 민속놀이인 ‘줄다리기’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고자 하는 글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24 ㉔: 처음, ㉕: 가운데(중간), ㉖: 끝	25 ①			

01 (가)는 “……면 …… 잊었노라”와 같은 문장을 (나)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있다.”와 같은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② (가)의 주제는 ‘떠난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것’이므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는 탐관오리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다.

③ (나)는 ‘임’이 아니라 사랑이 끝나도 스스로 사랑이 되어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고, (다)는 ‘임’을 소재로 한 작품이 아니다.

④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는 (다) 뿐이다.

⑤ (가)는 반어 표현을, (나)는 역설 표현을, (다)는 풍자 표현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을 뿐, 비유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02 (가)는 ‘잊었노라’라는 반어 표현을 통해 말하는 이의 애틋하고 간절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길이 끝난 곳에서도 / 길이 있다”와 같은 역설 표현을 활용하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사랑이 있다는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있다. (다)는 ‘백송골’ 앞에서는 비굴하게 도망쳤으면서 자신이 날렵해서 무사할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하는 ‘두꺼비’의 모습을 통해, 탐관오리의 허장성세(虛張聲勢)를 풍자하고 있다.

03 (나)의 계절적 배경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으로 희망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길’은 미래, 가능성 등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제목인 ‘봄 길’은 긍정적인 희망적인 가치를 보여 준다. 이 시에서 계절적 배경은 ‘봄’으로, 다른 계절로 변화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인 이유 ① 3~6행의 시구를 변용하여 11~14행에서 반복하고 있다.

② 이 시는 흐름상 1~6행, 7~9행, 10~14행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③ 7~9행은 사랑이 끝나 버린 절망적인 상황을 다양한 자연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있고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며, 단정적인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04 ‘두꺼비’가 ‘백송골’이 나타나자 두엄 아래 자빠지긴 했지만, 입에 물고 있던 ‘파리’를 놓쳤는지 삼켰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백송골’이 ‘파리’를 구해 주기 위해 나타났다고도 보기 어렵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더라도 지방 관리나 중앙 관리 모두 백성들을 억압하던 존재로 보아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②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두꺼비’는 지방의 탐관오리들로 볼 수 있고, ‘파리’는 이들에게 착취당하던 백성들로 볼 수 있다. ③, ④ ‘두꺼비’는 백성들을 착취하여 취한 이득을 중앙의 고위 관료에게 바치기도 했다는 점에서 ‘백송골’은 중앙의 고위 관료라고 볼 수 있다.

05 일본이 항복하자 이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박 선생님’이다. ‘강 선생님’이 ‘박 선생님’을 큰 소리로 나무라고 있는 부분을 보면 ‘강 선생님’은 일본의 항복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6 **서술형** (가)에서는 ‘박 선생님’의 외모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별명을 말함으로써 ‘박 선생님’을 희화화하고 있다. 이처럼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인물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가) 문단을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
‘풍자’의 효과 중 하나를 정확하게 썼다.	☐

07 ‘박 선생님’은 “텐노헤이가 바가(천황 폐하 망할 자식)!”라고 커다랗게 소리치며 일본이 패망한 것을 비아냥거리는 ‘대석 언니’의 태도가 못마땅하지만, 일본이 패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

08 여기서 ‘뺨’은 의존 명사로 길이의 단위로 쓰였다. 비교적 짧은 길이를 쥔 때 쓰는데, 한 뺨은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한껏 벌린 길이를 뜻한다. 한편, 한 손에 잡을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를 뜻하는 의존 명사로 ‘손’이 있다. 조기, 고등어, 배추 따위 한 손은 큰 것 하나와 작은 것 하나를 합한 것을 이르고, 미나리나 파 따위 한 손은 한 줌 분량을 이른다.

09 (라)는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겼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권력을 가진 나라에 아부하는 특성을 보이는 인물을 풍자하는 소설이다. (라)에는 해방 전후의 역사적 사건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말하는 이는 ‘당신’과 이별하였지만, 여전히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속마음과는 반대로 ‘당신’을 잊었다고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오히려 그리움의 정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② (나)의 말하는 이는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③ (다)에서 ‘파리’는 힘없는 백성을, ‘두꺼비’는 지방의 탐관오리를, ‘백송골’은 중앙의 고위 관료를 각각 뜻한다.

④ (라)에서 ‘뺨박 박 선생님’은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고 있는 한편, 해방 전에는 일본을 찬양하다가 해방 후에는 미국을 찬양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10 (가)는 각 연이 2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행은 10글자로 고정되어 있다. 또한 3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어서 말의 가락을 느끼며 읽기에 적절한 작품이다.

오답인 이유 ② 인물의 심리 변화는 소설이나 희곡 같은 서사 갈래의 작품을 읽을 때에 적절한 방법이다.

③ 무대에서 상연될 것을 전제로 쓰이는 문학 작품은 희곡이다.

④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며 읽어야 할 글은 주장하는 글이나 칼럼, 사설 등이다.

⑤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문학의 갈래는 수필이다.

11 (가)에서 말하는 이는 ‘먼 훗날’이라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당신’이 나무라면 ‘당신’을 잊었다고 말하려 한다. ‘당신’이 말하는 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12 (가)의 말하는 이는 ‘당신’이 돌아온 상황을 가정하고 있을 뿐, 꿈속에서 ‘당신’과 재회하고 있지는 않다. <보기>의 말하는 이 또한 ‘당신’을 잊지 못하는 자신을 안타까워하고 있을 뿐 꿈속 풍경이나 ‘당신’과 재회하는 순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말하는 이는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는 마음을 반대로 ‘잊었노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보기>의 말하는 이는 속마음은 괜찮지 않고 사랑도 잊지 못하면서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라고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② (가)의 말하는 이와 <보기>의 말하는 이는 둘 다 사랑하는 ‘당신’과 이별한 후에 ‘당신’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③ (가)의 말하는 이는 ‘잊었노라’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사실은 잊지 못하는 속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보기>의 말하는 이는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 /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날까.”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④ (가)의 말하는 이는 ‘당신’을 잊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사실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보기>의 말하는 이는 “미운 당신을 아직도 나는 그리워하네.”라고 말하며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3 (다)의 ‘두꺼비’는 약자인 ‘파리’는 입에 물고 괴롭히면서 강자인 ‘백송골’이 나타나자 두려움에 도망치려다 엎어진다. (라)의 ‘박 선생님’은 해방 전에는 무조건 일본 말을 쓸 것을 강요할 정도로 일본을 따르다가, 해방 후에는 일본을 욕하고 미국을 찬양한다. 이처럼 둘 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다)의 ‘두꺼비’는 약자를 괴롭히고 있으므로 풍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라)의 ‘박 선생님’은 강자 편에 붙어서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②, ③ (다)의 ‘두꺼비’는 두엄 아래 자빠진 자신의 실수를 오히려 어혈이 안 졌으니 다행이라며 덮고 있다. 반면 (라)의 ‘박 선생님’은 자신

의 어떤 점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풍자의 대상이 된다. 즉 둘 다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⑤ (다)의 '두꺼비'와 (라)의 '박 선생님'은 부정적인 인물을 비판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다.

14  <보기>는 반어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에서는 '과자 회사가 어찌나 고맙던지.'와 같은 반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과자의 용량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에 대해 과자 회사에 불만을 표현한 문장으로, 대상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완자쌤의 풀이

보통 일상에서 반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비꼬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많다. 예를 들어 엄마가 내가 잘못된 일을 두고 "잘했다. 잘했어."라고 하시거나, 친구가 약속 시간에 많이 늦었을 때 "참 빨리도 왔다."라고 하는 것 말야.

15 ㉠ 앞의 문장은 글쓴이가 과자 회사의 누리집에 항의하는 글을 올려야겠다고 결심했다는 내용이다. ㉡ 뒤의 문장은 이러한 소비자의 항의에 과자 회사가 귀를 기울일지 모르겠지만, 불만이 있는 소비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두 문장 사이에 있는 ㉢은 과자를 먹는 동생의 반응에 대한 것이므로 글의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16 ㉠의 앞에는 과자의 내용물이 너무 적어 화가 났던 글쓴이의 경험이 제시된다. ㉠의 뒤에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결과로, 과자 회사에 항의를 해야겠다는 글쓴이의 결심이 이어진다. 따라서 ㉠에는 앞뒤의 문장을 원인과 결과로 연결시키는 '그래서'를 추가해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③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어 주는 접속어이다. ④ 뒤의 내용이 앞의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나 생각을 서술하여 화제를 바꾸며 이어 주는 접속어이다.

⑤ 앞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거나 보충하는 접속어이다.

17 이 글은 발효의 개념을 설명하고, 대표적인 발효 식품인 김치, 된장 등을 예로 들어 우리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글이다. 특히 (라)의 내용을 보면, 김치는 채소를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먹기 위해 조상들이 생각해 낸 음식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는 '조상의 지혜가 담긴 전통 발효 식품'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발효와 부패의 차이점은 (다) 문단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② 세계의 여러 발효 식품들은 (가)에서만 제시된다.

③ 김치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기는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일 뿐, 글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제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⑤ 젖산균에 대한 내용은 (마)에서만 제시된다.

18 어떠한 대상이나 현상을 설명할 때 다른 비슷한 대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법은 '비유'이다. 그러나 이 글에는 '비유'의 설명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인 이유 ① (다)에서는 "발효란 곰팡이나 효모와 같은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와 같이 발효의 개념을 정의하여 설명하고 있다.

② (라)~(마)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인 김치를 소개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발효와 부패가 모두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꾸어 놓는다는 유사점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④ (가)와 (나)에서는 각각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식품을 만들어 내는 발효란 무엇일까? 그리고 발효 식품은 왜 건강에 좋을까?"와 같이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여 화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19 (마)에서 김치를 담글 때 채소를 소금에 절이면 효소 작용이 일어나면서 젖산균이 성장하고 증식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김치를 담글 때 젖산균을 따로 넣어 줄 필요가 없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다양한 발효 식품이 특유의 맛과 향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다)에서 발효는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라)에서 김치는 채소를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먹기 위해 조상들이 생각해 낸 음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⑤ (다)에서 발효는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꾸어 놓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20 ㉠은 약한 산성 물질인 젖산이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젖산이 풍부한 김치가 잘 썩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인과 결과를 연관 지어 설명하는 '인과'의 방법이 사용된 것은 ㉠이다. ㉠은 미세 먼지가 몸에 들어가면(원인)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결과)을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우리 학교 동아리의 구체적인 예(연극부, 밴드부, 풍물패, 댄스부)를 들고 있다.

② 가야금을 그 구성 요소인 '몸통, 줄, 안죽'으로 분석하고 있다.

③ 국악기의 종류를 연주 방법에 따라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구분하고 있다.

⑤ 줄다리기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21 [자료 2]에서는 "줄다리기는 놀이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결속하게 하고, 개인에게는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 준다."라고 하며 줄다리기의 가치를 소개하고 있다. 즉 줄다리기의 가치를 원인으로 하여, 줄다리를 잘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자료 2]는 '인과'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2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개요를 작성하면 글을 쓸 때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하는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개요를 짚다고 해서 자신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3 서술형 이 글은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인 ‘줄다리기’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글이다. ‘2. - 나’는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줄다리기 규칙을 포함하는 항목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삭제해야 하는 항목을 정확히 제시하였다.	☐
글의 목적과 관련지어 해당 항목을 삭제해야 하는 까닭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

24 서술형 (가)의 자료와 (나)의 개요로 보아 이 글은 ‘줄다리기’를 설명하기 위한 글임을 알 수 있다. 설명하는 글은 주로 ‘처음 - 가운데(중간) - 끝’의 짜임으로 이루어진다.

25 ‘정의’의 설명 방법은 대상의 본질, 개념, 뜻을 밝히며 설명하는 방법을 뜻한다. ①에서도 귀지의 뜻을 밝힘으로써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②는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③과 ④는 인과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⑤는 예시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